

# 구원의 A·B·C

정동수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구원의 A·B·C

정동수 지음

1판 1쇄 / 2023년 5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정가 : 8,000원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 목 차



서 문 .....	4
제1장 인간의 문제 .....	9
제2장 하나님의 구원 .....	44
제3장 회 개 .....	102
제4장 믿 음 .....	127
제5장 은 혜 .....	141
제6장 구원 패키지 .....	152
제7장 구원 관련 이슈 .....	171
제8장 구원 요약 .....	189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로마서 3장 20-30절)



# 서 문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암 4:12).

“오늘 인생을 마감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비록 마음이 상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므로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마7:13-14).

“독자께서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속이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다른 장소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계20:12-15; 21:2-27).

이 책에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구원의 진리를 차근차근 소상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 책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독자께서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생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딤후 3:15). 그 뒤로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가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1988년 5월에 만 28세에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 표준 연구소에도 근무했고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4년 동안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귀국해서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며 에너지/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서 구원은 받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주의’(Roman Catholicism)라는 종교와 성경의 기독교를 비교해 가면서 행위 종교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천주교를 대적하는 칙 출판사였습니다.<sup>1)</sup> 이곳과 여러 출판사의 서적들을 통해 저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1611년에 출간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고 가장 많이 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The Holy Bible’로 인식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해 보니 불행히도 국내에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않았고 다만 카톨릭교회 사본들에서 나온 개역성경과 공동 번역 등만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바른 성경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곧바로 몇몇 성경 신자들과 함께 약 15년 동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sup>2)</sup> 바른 성경을 출간한 뒤 이제는 바른 성경을 근간으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바른 교회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도 하고 2년 전에는 부천에서 지역 교회를 세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sup>3)</sup>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슴앓이와 고생도 했지만 제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고전15:10). 특히 자연 과학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시고 더럽고 악한 저의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죄들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제가 알게 된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진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

1) 칙 출판사(www.chick.com)는 천주교, 뉴에이지, 각종 이단들을 대적하는 서적들과 300여 종이 넘는 만화 전도지로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곳이다.  
2)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www.KeepBible.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2021년에는 약 30년 작업 끝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판이 출간되었다.  
3) 저자가 섬기는 사랑침례교회는 2012년 5월에 인천 소래 포구 옆의 논현동으로 예배 처소를 옮겼고(www.cbck.org 참조 바람) 다시 2018년 9월에 서창 캠퍼스로 옮겼다.

구원의 진리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은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세 카톨릭교회 처럼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재물과 명예가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 허사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의 모든 양들의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외형은 커지는데 속은 썩어 가고 있습니다. 실로 이 시대에서는 교회에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횡행하여 교인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신유, 방언, 입신, 출세, 성공, 액땀, 예언, 록 음악 등을 추구하며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서점에 가 봐도 구원 문제를 알기 쉽고 심도 있게 다룬 책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근 50년을 교회에 다닌 한 성도가 회의와 낙심과 절망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된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교리들을 접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과연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무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탐구하였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이 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학교 교재로 만든 책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요약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담은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는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sup>4)</sup> 이 시리즈에는 사랑침례교회에서 12시간에 걸쳐 행한 구원 강좌 세미나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 주는 설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통해 독자께서 성경이 말하는 ‘광대하고 위엄이 넘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어 나오기까지 여러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의 하은경 자매님이 구원 세미나 음성 파일 녹취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계신 진미희 자매님께서 원고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 책과 CD의 표지는 김재욱 형제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우리 출판사의 책과 CD의 표지는 다 김 형제님이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상세한 성경 선도들은

---

4) [www.cbck.org](http://www.cbck.org)에서 우측 상단의 무료다운로드로 가면 구할 수 있다.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와 성경 지킴이 사이트([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그리고 유튜브([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에서도 믿음 생활에 대한 문서와 음성 및 동영상 설교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본서의 뒤표지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쉽게 관련 링크로 갈 수 있다.

이승철 형제님이, 간단한 삽화들은 김재욱 형제님이 그려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꼼꼼히 교정을 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편을 위해 늘 사랑으로 조연해 준 아내와 또 부족한 목사 형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기도로 성원해 주시는 사랑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sup>5)</sup>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약속으로 정해졌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떨치하면 결코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히2:2-3)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후6:2)

이 책을 읽으며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sup>6)</sup>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0년 6월 10일  
인천에서  
정동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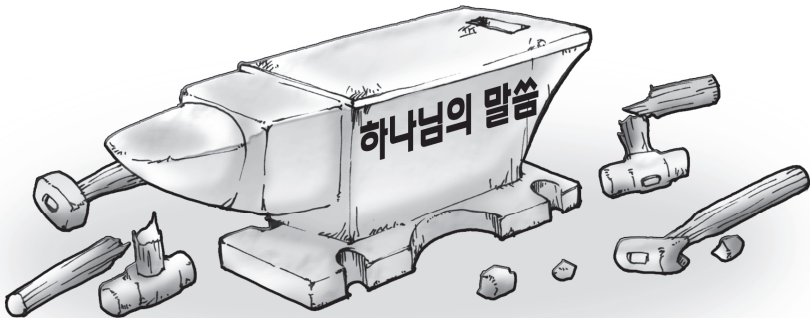
5)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다.

6) 유튜브에서 ‘정동수 목사 구원 바로 알기’로 검색하면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들을 수 있다.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합니다.



## 제1장

# 인간의 문제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재림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재림을 늦추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죄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휼을 베푸셔서 모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고 헌금하니까 자신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독자께서는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국에는 워낙 교회가 많으므로 신자나 불신자나 한 번쯤은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을 뜻합니까?”라고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믿는 바를 제대로 요약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디 이것을 잘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체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또 구원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은 이 책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한 뒤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는 기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바로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 좀 더 바로 알아서 먼저 자신이 큰 평안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바른 것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지방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부지런히 성경기록들을 탐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증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 구원’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도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교리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원에 대해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하니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성경과 이런저런 관련 서적들을 보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먼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 폭넓게 제시하고 그 뒤에 개인의 구원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장에서는 먼저 인류의 역사와 종말 등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인류의 운명

대부분의 교회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 차원에서 다루지만 저는 이 구원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종말론적인 구원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68억 명입니다. 지금도 초마다 몇 명씩 태어나고 또 몇 명씩 죽습니다. 인터넷에서 최근 자료를 찾다가 매초 죽고 태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전체 인구 숫자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현재 인구가 몇 명인가를 알려 주는 사이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1초마다 4.4명이 태어나고 1초마다 1.7명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매초 2.7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면 과연 이 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많은 식량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땅에는 이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있을까요? 또 사람이 늘면 환경이 파괴되는데 이런 상태로 사람이 계속해서 늘 때 과연 지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강과 바다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는 다 강이나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개발하느라 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하늘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가 파괴되고, 땅이 파괴되고, 하늘이 파괴되면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변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68억 명에서 70억, 80억, 90억, 100억, 200억 명으로 늘면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할 텐데 과연 이 지구는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가 최대 감당할 수 있는 인구는 85억 명이며 이것을 넘어서면 식량, 에너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서로 죽이고 빼앗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든지 혹은 어떤 다른 종류의 급진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지구의 인구가 85억 명이 될까요? 다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09년 8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50년에 전 세계 인구는 9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으로 약 30-40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인구가 팽창해서 무언가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팽창만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연료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연료는 대부분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옛날에 대격변에 의해서 땅속에 깊이 묻힌 채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순식간에 석유나 석탄 등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 최종 생산물을 땅에서 파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런 연료를 채취해서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연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는 어느 때까지 채취해서 쓸 수 있을까요? 다시 자료를 살펴봤더니 2040-50년경이 되면 사람이 쉽게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석 연료가 다 동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땅속 깊이 더 내려가면 채취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체 연료를 개발하지 않으면 연료 문제 역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인류학자들과 기후학자들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공학 학자들이 자기들의 정부나 UN 같은 국제 협약 단체에 보고한 자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종말이 - 어떤 종류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저는 먼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분명히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래에는 증산도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도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지가 개벽이 된다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다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믿음 체계 역시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종말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셨듯이, 즉 ‘초림’(First coming)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Second coming)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계22:20).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미5:2; 마2:6).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신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300번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통해 그분께서 가장 빈번히 전하신 말씀은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요14:3).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 거기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셨습니다(행1:11).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11).

또한 사도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빌3:20-21; 약5:7-8; 벧후1:16; 계1:7). 한편 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 하나인 주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합니다(고전11:26). 또 구약 시대에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시편 기자 등과 같은 많은 대언자들이 주의 날의 심판,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과 그 뒤에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의 날[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취한 노략물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슌14:1-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아주 명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기록에 따른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경기록대로 사실로 드러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즉 성경기록대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으므로 성경기록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로 그분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2030-40년경이 되면 종말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체 복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포유류 짐승들을 복제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1일, 「사이언스」지는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500억 원을 들여 인공적으로 합성한 유전자를 이용해 ‘인공 합성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은 ‘인공 합성 세포’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명백하게 ‘최초의 인공 생명체’입니다. 그 잡지는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마침내 세균(박테리아)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벤티 박사는 맞춤형 박테리아가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 대기 중 탄소 제거, 효과적인 백신 생산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이런 생명체가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요술 방망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 생명체가 자연으로 퍼져 나가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체와 결합해 치명적인 병균이 될 수도 있고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 생물학 병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며칠 뒤인 5월 27일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생명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증산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 내는 시대를 열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이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일을 그분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일이 절정에 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때에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인구 팽창 문제 등이 겹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종말론적인 어떤 대격변이 30-40년 내에 지구에 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공상 과학 영화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종류야 어떻든 공상 과학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증언합니다.

이제 성경의 주장과 세상의 현상들을 연결시켜 봅시다. 완전한 진리의 책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 (1) 유대인들의 일부 회복 및 성전 건축 시도(마24:15-22)
- (2) 과학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단12:4)
- (3) 세상에 편재해 있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벤티후3:3-4)
- (4) 극도로 만연되어 있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딤후3:1-7)

(5) 사회적 다윈주의로 인한 극도의 양극화 현상(약5:1-8)

(6) 유전자 조작(창6; 마24)

이러한 성경의 징조들과 위에서 언급한 현시대의 종말론적 현상들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는 지금처럼 성경에 나오는 명백한 재림의 징조들과 세상의 현상들이 일치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께서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론적 현상들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을 떼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살펴보고 과연 이 지구와 온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이 전해 주는 징조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정말로 가까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 2. 인류의 문제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0년 1월에 아이티라는 중남미 국가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으로 인해 5만 명이 죽었다고 하다가 10만, 15만, 20만 명으로 피해 사망자 수가 늘더니 지금은 아예 사망자 수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런 종류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 말이 아닙니다.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1900년 이후로 특히 1950년을 넘어서면 서부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올 무렵에 땅의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마24:7)

이와 같은 성경의 자료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세상의 기상학자들과 지진 학자들이 이미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데이터는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엄청나게 늘고 있으며 요즘 들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없는 나라인데도 얼마 전에는 시흥시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또 북한의 두만강 유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칠레와 중국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여러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을 살펴봅시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기근으로 인해 바싹 마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들을 못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어서 매해 수십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에서도 이번 겨울에 수십만 명이 아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지난 몇십 년 동안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이 60%로 세계 제1위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사탄 마귀의 독재 체제하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각해 볼까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6·25 전쟁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최근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도 한번 살펴볼까요? 질병 중에 가장 두려운 질병을 들라고 하면 에이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가 가장 많이 번지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밑부분은 거의 70%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롬1:27).

또 이번 겨울과 지난해 가을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열심히 손 닦으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종 플루 외에도 조류 독감 또 사스와 같이 유전자 변이로 인한 질병, 즉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빈부의 양극화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미국을 대비해 보기 바랍니다. 대륙과 대륙 간에도 엄청난 양극화가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즉 엄청난 규모의 양극화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여러 형태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이나 물고기 혹은 날짐승 가운데 종이 멸절하는 종류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오존층 붕괴로 인해,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남미의 안데스산맥에서는 산양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이 붕괴되어 양들의 눈에 백내장이 생겨 눈이 멀어서 양들이 앞을 보지 못하므로 낭떠러지에 갔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를 보십시오. 요즘 거의 매일 TV와 인터넷에는 온난화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극의 눈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곳곳에서 얼음과 눈이 녹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에는 여름에도 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 심각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황사가 생깁니다. 중국에서 많은 땅이 계속해서 사막으로 변하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고 2010년에는 특히 소금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환경 피해가 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독재와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북한을 봅시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수백만 명이 죽거나 독재 체제 속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아랍 국가들은 완전 독재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거의 다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도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재와 학정 때문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처럼 큰 재앙을 당하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문화는 날이 갈수록 저질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의 저질화 현상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든 아니면 한겨레신문이든 인터넷판에 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무슨 기사를 하나 보고 나면 그 밑에 선정적인 모습의 여자 사진이 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굳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사마다 대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시다. 도대체 찜질방 화면이 왜 드라마/코미디/대담 프로그램에 매일 나오니까? 이렇게 유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나오고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째질방 옷을 입고 가서 목욕탕 사진을 찍어 방영하는 나라, 그렇게 유치한 일을 해도 시청자들이 하루 종일 좋다고 웃는 한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TV, 영화, 책, 음악과 같은 거의 모든 매체가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여러 종류의 심각한 죄도 매체들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악한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Homosexuality, Sodomy)입니다. 성경이 보여 주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첫째로 나타나는 가장 사악한 죄가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몸속에 보응을 받는 죄가 세상에 계속해서 유행하며 퍼지고 있습니다(롬1:26-27). 최근에는 김수현이라는 유명 작가의 동성애 드라마가 지상파를 타고 버젓이 좋은 시간대에 안방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여과 장치 없이 부모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보는 아이들의 사고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요새는 살인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각이 아주 완전히 무뎠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인의 경우에도 끔찍한 토막 살인이나 아이들을 유괴해서 죽이는 반인륜적인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과 음행이 모든 매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고 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악한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인의 날에는 성인이 되는 남녀가 성인식을 하느라 너도나도 모텔로 몰려 방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같은 문화에 젖어서 살므로 이런 사악한 죄가 악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자라면서 악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진화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사람은 원숭이에서 났어요.”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 미쳤소?”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50년 전에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났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메바에서 물고기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처음부터 ‘그것들의 종류’(after their kind)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창1:21, 24 등) 오히려 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으로 몰리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처럼 진화론 체계의 바탕인 유물론 혹은 물질 만능주의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다 보니 돈 버는 것, 좋은 차 갖는 것, 좋은 집 갖는 것 등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유일한 소망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문화로 인해 이제는 인간 본연의 애정 파괴, 즉 인간성 상실이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낙태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될 때 생명이 형성되므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영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는 수태가 되는 때부터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셀 때 우리 방식으로 나이를 세는 것이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아기가 배 속에 있는 기간도 1년으로 치므로 아기가 태어난 이후의 기간에 1년을 더해 나이를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엄마 배 속에서 수태될 때부터 세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해 수천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인해 죽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유기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성 상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이 시대에서는 진리를 탐구하고 바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18:8).

제가 이 모든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안에 혹은 이 지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지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 같은 재난과 기근, 전쟁,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이성이 미워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산도 추종자들도 이야기하는 천지개벽하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간을 조금 내서 세상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 3. 교회의 상태

그러면 진리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진리의 마지막 보루로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심판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힘 있게 외치고 있습니까?

말세의 믿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무어라고 하셨습니까? 위에서 보았듯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세에는 자기 배만을 불리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구역질이 나는 교회들 천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물질 면에서는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세에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교회의, 각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바로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충고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렀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계3:14-19).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41절과 누가복음 17장 22-35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의 상태가 구약 시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 땅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 자신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덟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둘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든 악과 재난과 재앙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이 온 때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준비하라!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11-14).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하루에 50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현재의 예배당이 부족해서 자그마치 3,000억 원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이들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도리 자체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습니다.

문을 여는 것보다 쉽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첫째, 구원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오라고 하지 실제로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시간을 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교회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시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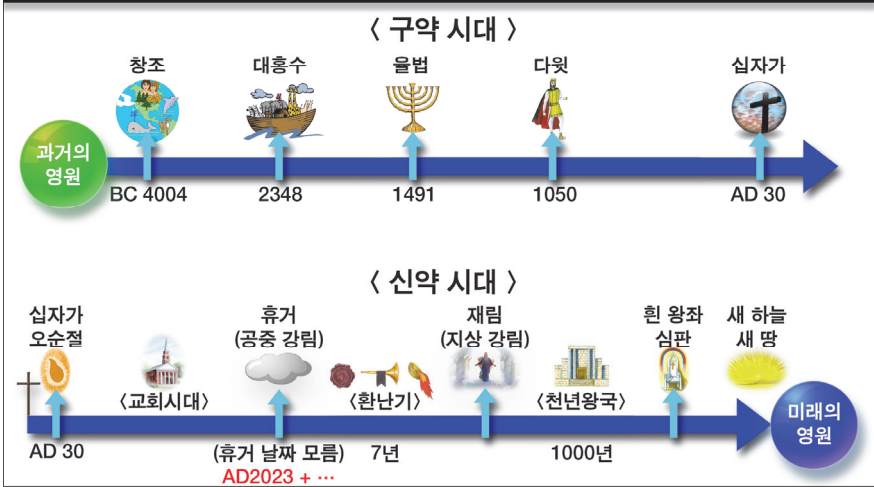
#### 4. 인류의 역사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조명해 보면서 먼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구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과 과학적 데이터가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배웁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주 옛날에 - 약 200억 년 전에 - 콩알만 한 것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었는데 ‘빅뱅’(Big Bang)이라는 커다란 대폭발에 의해 이것이 갑자기 터져 나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파편 조각들이 온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수천억 개 혹은 수조 개의 별이 됐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생겼을까요? 그들은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지금부터 5,000만 년 전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4,9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를 하다가 지금부터 약 100만 년 전에 첫 번째

# 인류역사 타임라인



사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 세상의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꾸며 만든 이런 ‘가짜 이야기’들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는 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다 허구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빅뱅’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연대와 이야기들은 단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그랬으리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믿음’(Faith)이지 결코 ‘과학’(Science)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지옥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기고 100만 년 전에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도 다 ‘믿음’(Faith)입니다. 즉 진화론은 ‘믿음 체계’(Faith system)이지 ‘과학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인본주의 믿음 체계’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지금부터 20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하는 온 우주 만물과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단순명료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약 4,000-4,500년 전에는 문서로 기록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를 선사 시대라고 한다.”는 진술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역사와 문화 기록이 문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역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4,000-4,500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 시대 이전에는 기록이 없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아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우리는 역사를 ‘History’라고 말합니다. 이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펴 보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펴 보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는 오대양 육대주가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북미와 남미가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대양 육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유럽 남부와 중동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를 붙이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서쪽 부분하고 남아메리카의 동쪽 부분하고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의 서쪽 부분하고 북아메리카의 동쪽 부분하고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옛날에는 땅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 중에 베게너(A. L. Wegener)라고 하는 사람은 ‘대륙 이동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은 원래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원래 지구)에서 분열이 일어나 오대양 육대주로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sup>1)</sup>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창10:25).

---

1) 네이버 백과사전의 대륙 이동설(<http://100.naver.com/100.nhn?docid=44502>)을 참조하기 바란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판게아' 땅〉

우리말 성경에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 곧 지구가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나뉘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즉 지금부터 약 4,200년 전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지구가 한 덩어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 지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판게아 지도로 가서 대륙 조각들이 붙었을 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 중동 지방,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에덴동산이 있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원래 지구, 즉 창세기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든 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중심이던 땅은 중동 땅, 좀 더 자세히는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저 땅,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서 있는 중동의 저 땅이 온 땅의 중심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에덴동산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땅을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지금 다시 거기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땅 곧 지구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뉴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CNN 등의 뉴스를 봅니다. CNN 뉴스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대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 미국 뉴스의 톱기사는 무엇일까요? 대개 이스라엘/중동 문제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한 이래로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미국이나 영국 뉴스에서 늘 보도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슬람 국가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뉴스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우뚝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증명해 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 - 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가나안(팔레스타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은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이 차지할 상속 유업의 땅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1948년 5월에 과거 2,50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을 다시 거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자신의 손을 통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주장, 즉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수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거기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대부분 이런 거짓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로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를 민족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라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에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말세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가서 거하는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몰려오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과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부활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국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기 힘든 짐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잔으로 역사 속에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란 핵무기, 이라크 사태,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대해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다 이스라엘 때문에 생깁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전 세계의 중요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는 계시록 11장, 에스겔서 40-48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지금 팔레스타인(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1,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해서 1,400만 명인데 이 1,400만 명이 68억 명의 인류가 지기 어려운 부담의 짐으로 무겁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재물과 학문과 예능과 노벨상 등을 다 어느 민족이 석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버드/예일 대학 입학생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기 중동 땅에 가 있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 하니 그것을 반대하는 아랍 사람들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유럽 역사 특히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또 몽골을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해 다 배웠습니다. 이제 세계 역사의 축이 대서양 너머로 넘어가서 이제는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제 또 그 축이 태평양 너머로 넘어가서 이제는 중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려

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정표 속의 인류 역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C 550년경에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사용해서 다니엘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역사의 변천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첫째로 온 땅을 다스리는 바빌론 왕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며 그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의 맨 끝에 가서는 죽어 있던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즉 온 세상의 맨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이루고 부흥하며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의 기록을 따라서 온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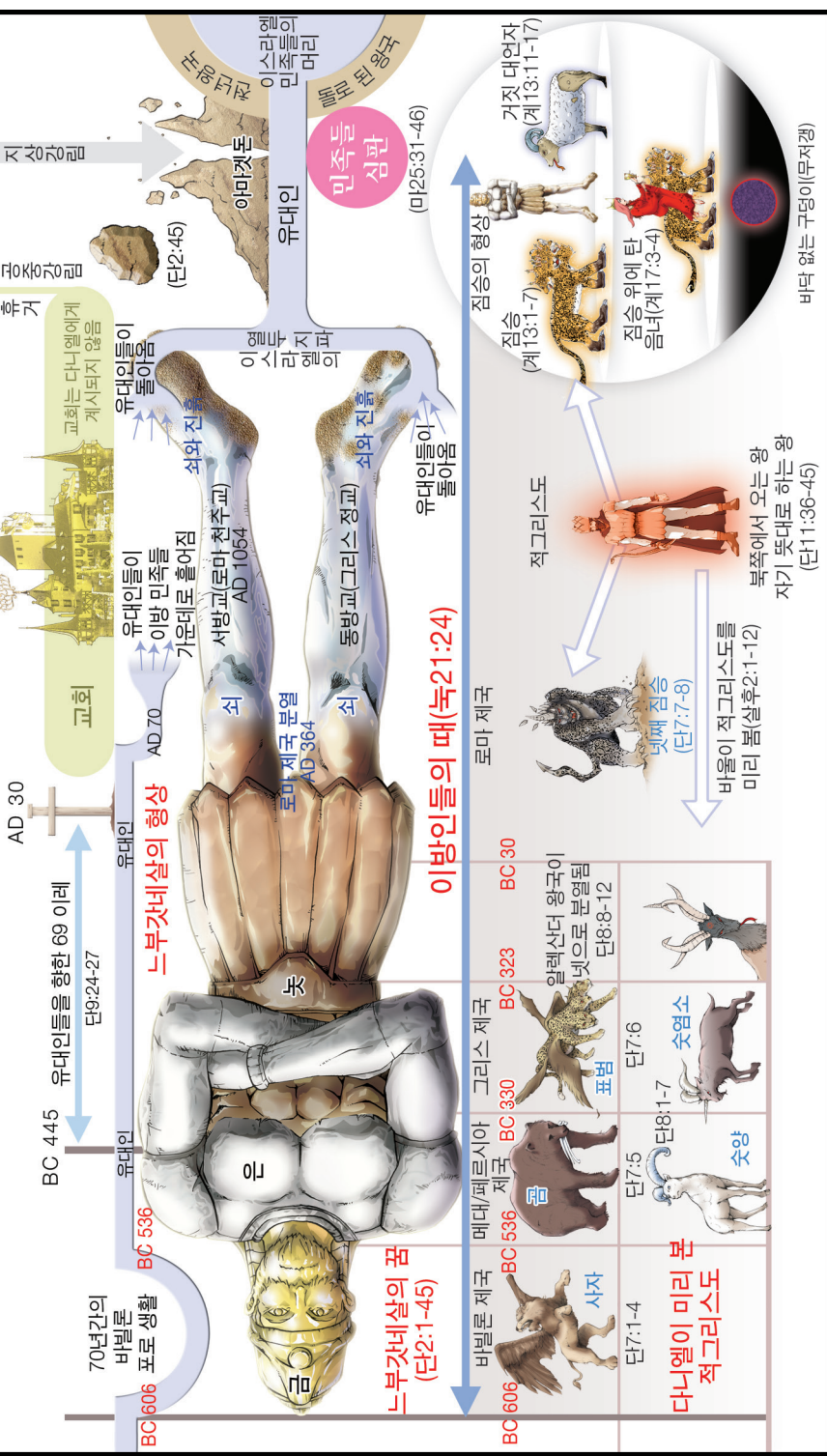
지금은 바로 죽어 있던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뿌리가 있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이 부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임무를 다하면 점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이미 쇠하는 길로 접어들었고 이제 미국 또한 힘을 잃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과거에 구소련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한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일시에 이 나라를 붕괴시키니까 나라들이 다 나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시에 지금 유럽 연합을 만들어 버리니까 수많은 나라가 갑자기 한 나라가 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지금까지 해 준 일이 무엇입니까? 앵글로·색슨족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보존해 주시고 또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쇠퇴하는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 종교들을 다 합치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이 종교들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자기들의 기원에 아브라함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되면서 이들로 인해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 왔고 또 이들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지금 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발흥하는 종교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세력은 아프리카와 유럽 전체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이슬람 국가라 할 정도로 이슬람 세력이 영국을 거의 다 삼켜 버렸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비록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꾸란(코란)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무서운 종교 정책으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비슷한 탈을 썼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와 성인들을 섬기며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 하나님이가장 미워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 시대가 완전히 폐해졌는데도 여전히 ‘제사장’(Priest) 시대를 유지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성직자 계급 체제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미사라는 형식을 통해 매주 몇 차례씩 전 세계의 모든 성당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또한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의는 갈레 누더기와도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이와 같은 가짜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크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대 관계가 형성되면서 9·11 사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시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반 검색으로는 이들의 테러를 막을 수 없어서 이제는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가져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이슬람교와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의 종교인들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그리고 같은 구원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에 따라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종교 통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짜들은 다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를 믿든 크리슈나를 믿든 무함마드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다 그게 그거라고 말합니다.

종교 통합에 앞장섰던 마더 테레사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 있지만 결국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가짜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반을 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산의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럿이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합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왕따가 돼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같이 되는 일이 지금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즉 'History'는 'His story' 곧 '그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종말론 차원의 구원이 무엇이며 왜 인류에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개개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커버하는 구원, 즉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큰 차원의 구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디 이 점을 꼭 이해하고 나머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봤을 때 성경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통합적인 구원입니다.

## 5. 인간의 공통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보면서 무언가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여러 국가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또 인류가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심지어 세상 학자들까지도

앞으로 30-40년 지나면 결국 어떤 종말론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예측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공과 대학의 교수입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를 지은 저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 즉 제가 읽고 있는 교과서를 지은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학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칩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를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심오한 것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일들, 하나님에 관한 일들, 이런 어려운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서 저 역시 구원 문제를 논리적으로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외에도 본질적으로 사람 안에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초마다 전 세계에서 4.4명이 출생하고 1.7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압니까?”라고 물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죽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의 많은 영웅호걸들은 불로초나 불사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어떻게 늙지 않고 영원히(혹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당하게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조금만 성장해도 양심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우리를 찢어서 아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생기는 것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내가 하다니 어찌된 영문일까?” 혹은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31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원에서 어떤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좀 고귀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참 젊어 보인다.”고 하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어제 이발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형제님하고 똑같이 죄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여러분과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별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심이 자꾸 우리를 압박하고 찌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들 말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각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 안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칠팔십 년 정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이 속에서 팍팍 찌르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해결 방법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 6.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남묘호랑계교, 물몬교, 안식교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종교는 왜 생기는지 살펴봅시다. 종교는 죽음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이나 죄를 자꾸 범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죄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선한 일을 자꾸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중에 하나님이든 조물주든 ‘어떤 신적 존재’(절대자) 앞에 가서 자기가 서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저울에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놓이는데 이때 선한 행위가 더 많으면 저울이 선한 행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행위를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선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가 “너는 극락행이다.” 혹은 “너는 천당행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최종 운명을 지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 체제는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뉴에이지든 남묘호랑계교든 안식교든 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악한 행위를 보상하게 되거나 혹은 능가하게 되면, 즉 저울에 놓았을 때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천당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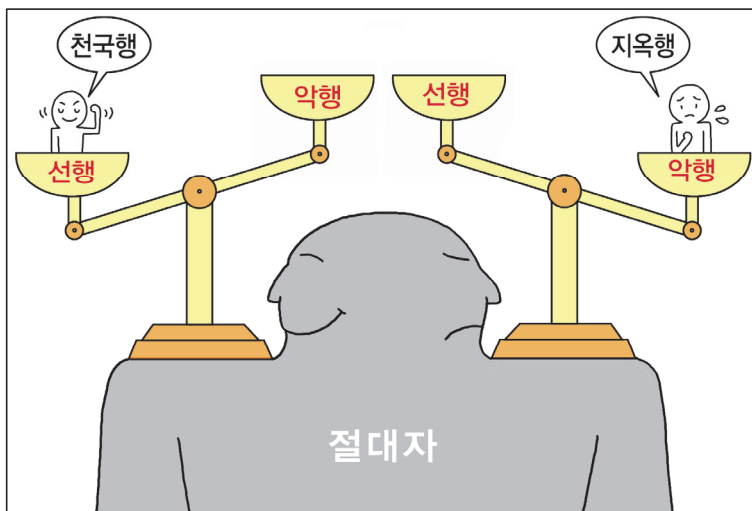
저는 위에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비슷한 것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교회를 옮기면 교회를 옮겼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든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오면 개종(改宗)했다고 그러합니다. 개종은 종교를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말만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 실은 이방 여신인 마리아와 각종 이교도들의 풍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고 사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거짓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내 힘과 재력과 명예와 권세와 선한 행위들을 가지고 내 악한 행위들을 가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통해 천국(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종교 체제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의 불교도나 천주교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일들을 하는 면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서면 마더 테레사나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목사나 성도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모두



〈이 세상 종교들의 구원 방법〉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선행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고 악행의 정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모든 사람이 시뻘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그런 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조금 단순화해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개미와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의 집이 조그만 바위에 눌러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볼 때는 조그만 바위를 치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니지만 개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위를 치울 수 없으므로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개미가 좋은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바위를 치우고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 일은 같은 힘을 가진 '개미 종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류가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무함마드든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와 똑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일을 수행하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와 죄와 양심의 문제를 일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거나 돈이 많거나 교회에 가서 일을 많이 하거나 목사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할 것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중에는 하나님의 일에 더해서 그 일을 완전하게 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3:10-18).

그렇다고 악행을 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구원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웃을 입을 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 맨 끝에 가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교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끝에 가면 지옥행으로 결정 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시스템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개미집에 바위가 무너져 내리고 개미 사회에 다리가 파괴되면 개미는 그런 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개미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 즉 사람 같은 존재만이 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온 지구가 안고 있는 창조물의 신음 문제, 인류 역사의 갈등 문제, 온 우주 공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체제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다가오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 창조물이 자기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존재에게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창조물과 지구와 우주와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는 통합 해결책입니다. 즉 인간 내면의 죄 문제와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이 시간에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시공간까지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개인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케일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의 ‘큰 틀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기독교의 구원,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온 우주 공간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 7.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에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면 “너나 가서 잘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기독교와 목사’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와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개독교와 목사’가 됐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교회가 뼈저리게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미국식도 없고 한국식도 없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식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특히 미국의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성경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머니즘이라는 토속 무속 신앙과 함께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면 하는 이야기가 죄다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에 다니면 아들이 대학 붙는다. 교회에 가면 사업이 잘된다. 교회에 가면 병 낫는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가면 복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사업이 잘됩니다. 방언도 합니다. 귀신도 쫓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 목사님이 용해서 우리 교회에 가면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붙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어 놓고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알고 지극정성을 다해 온갖 보석으로 예배당을 치장하고 심지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얼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산에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 놓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 가운데 거했지만 구약 시대 중반부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신정 왕국 시대부터는 그분의 영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짝 갈라진 뒤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고전6:19).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멋진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천억 원짜리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은 오십억 원짜리다.”라는 말 역시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을 성전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팡팡대며 록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왜 록 음악을 합니까? 교회에서 록 음악을 안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체들이 록 음악을 하는데 교회만 안 하니까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볼티모어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 교회에서 록 음악을 안 하면 교회 올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록 음악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랩 음악을 하고 귀 뚫고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한 히피족 같은 남자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십자가 메고 발광하는 그런 지지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들 안에는 매관매직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총회장, 노회장, 감독, 감독 회장 한번 하려면 적어도 몇억 원을 써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 돈 다 누가 냅니까? 성도들이 낸 돈을 목사들이 매관매직하려고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장로 한번 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집사 한번 하려 해도 돈 안 내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중세 카톨릭교회의 부패를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패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다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유다 왕국의 예레미야 대언자가 살던 시대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합작하여 거짓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저질러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라(렘5:30-31).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음악도 구분이 안 됩니다. 문화도 구분이 안 됩니다. 정의 구현 사제단이니 민주화 목사들 모임이니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당 대표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런 대표 역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복된 신약 시대에 성경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하면 무언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방문하셨는데 남편은 양복으로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매님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처음 오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야겠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를 준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

면 내적 경외심이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그분의 거룩함이 실종되어 늘 속된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아이나 어른이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인데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가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경 말씀 한두 구절 읽고 거의 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구원받게 한 다음에 혹은 구원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 표현대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율법 시스템으로 사람을 집어넣어 목사나 교회의 종이 되게 하는 교회 시스템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보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주교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神父), 즉 제사장을 가져다 놓고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무언가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하는 이런 시스템은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니콜라당의 시스템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런 것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계2:6). 그냥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옛날엔 다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그러합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성당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배당에 성스러운 무언가를 모셔 댄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을 그냥 '강당'(Auditorium)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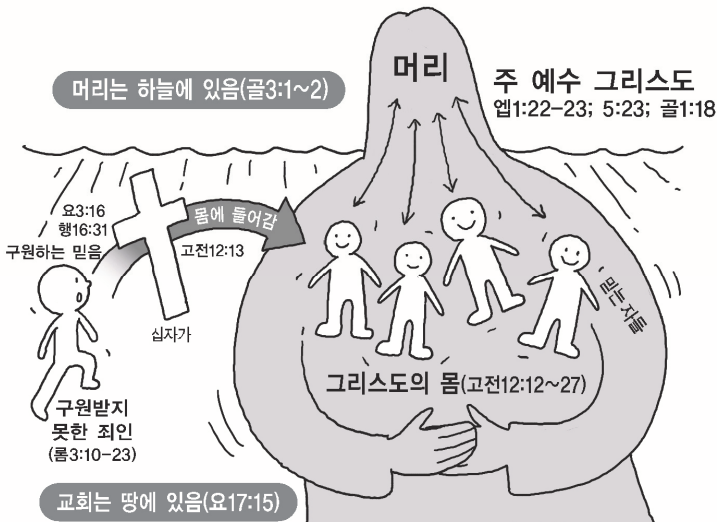
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해서 신문사 만들고 자기 사업을 벌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치장하고 있고 수천억 원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 이미 교회는 비정상적인 단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 8.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 세상에서의 인간 내면의 죄 문제, 육신의 사망의 문제, 그리고 양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죄와 죽음과 양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인류의 근본 문제와 우주 공간의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통합 시스템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이 돼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라든가 혹은 “저 사람들 참 깨끗한데. 정말 삶이 멋있는데.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는데.”라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선함, 모든 아름다움, 모든 영광, 모든 권능, 모든 존귀한 것, 모든 명예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의 극치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지니신 이런 특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특성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 9. 통합적인 구원

이제 구원을 큰 스케일로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이 박탈됐습니다.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는 창조 세상의 문제, 지구의 환경 문제, 온 우주 공간의 문제, 영적인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통합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온 우주 공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먼저 영과 육과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다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재난과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또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내부에서 생기는 죄와 죽음과 양심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다루는 구원이라는 주제는 이런 광활한 스케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머니즘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스케일이 점차 점차 커져서 온 우주 공간과 영적 세계에까지 미치는 그런 스케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 공간에까지 이르는데 만일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스케일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이 이 모든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와 같은 ‘큰 스케일의 구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에 머리 집어넣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생활하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놓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 온 우주 공간을 통째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롬8:17).

이런 관점에서 ‘큰 구원의 스케일’ 속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죽지 아니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롬2:7). 바로 이런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저는 위에서 큰 스케일에서의 구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 제2장

# 하나님의 구원

이제부터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큰 스케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스케일을 작게 해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구원의 정의

누가 와서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Salvation)은 ‘구출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낸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란 말이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속박에 빠져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집트 속박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출14:30; 시106:8). 이해하시겠지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로 내려가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없어 밑으로 빠지니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마14:30). 이럴 때 구원은 천국 보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이 위협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든 무슨 급박한 상황이든 어떤 종살이든 어디에 속박되어 있든 거기서 구출해 내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문제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먼저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양심이 찢립니다. 이 같은



양심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때문에, 죄 짐에 눌러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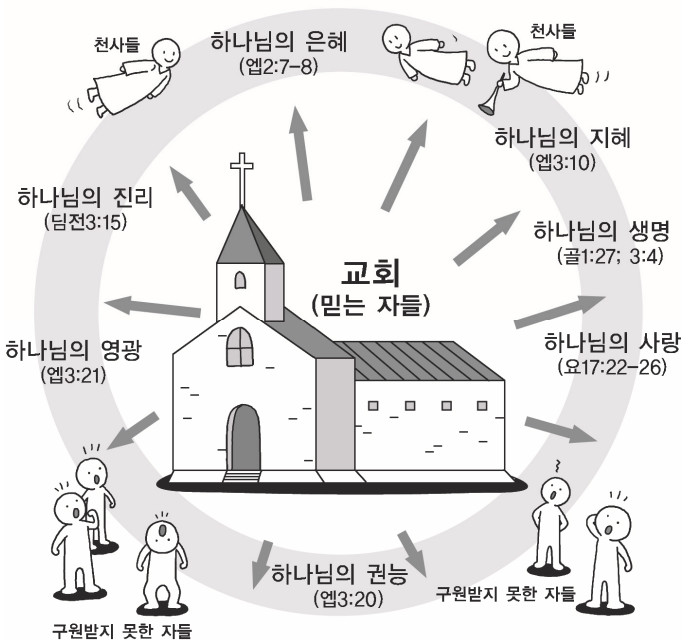
또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의 온 창조물이 크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은 죄와 사망과 지옥과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나 탈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에서 구출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구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각자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열 살짜리, 스무 살짜리 옷 사다 놓고 즐거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배 속에서 나와야 그다음에 성장을 해서 열 살도 되고 스무 살도 되어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의 예배당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병아리를 감별하듯 감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각 사람 자신과 하나님만 개개인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롬8:16).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요일5:20).

기독교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없으면 교회 생활 30년, 십일조 생활 5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무슨 선행을 했든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일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적당해서 목사가 시간을 내서 최소한 한 번은 모든 사람을 만나 구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가서 바람을 흠 부니까 다 날아가는 겨로 판명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나 신경 써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구원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자마자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적당한 시간이 됐을 때 “형제님, 자매님,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말하며 구원 문제를 이야기해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의 도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가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성장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전도하라고 내모는 곳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되기는 쉬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 2. 기원의 문제

위에서 우리는 구원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먼저 기원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원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가며 기원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기원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체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개인적 목표 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생활 형태를 조정할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기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만일 진화론의 철학이 옳다면 삶이란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확신, 행동, 그리고 신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우주의 기원에 관한 질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창조 세상 가운데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처음에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문제들이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능과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질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셋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작점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또 종착점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착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차에 기름 넣고 계속해서 떠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요?”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냥 차 가는 대로 갑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와 우주의 출발점이 어디고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알지 못하면 대단히 불안합니다.

### 1. 우리의 과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어디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태백시 대덕산 검룡소가 남한강의 발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강은 금강산 부근이 발원지입니다. 이 두 강이 5백 킬로미터 넘게 흘러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발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맨 끝에 가면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기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 맨 끝에 가면 원승이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공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씩 자동 할당돼서 그들을 상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등에 대해 다 상담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겨 놓고 끝까지 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너의 기원에 대해 물으려 한다. 네 할아버지는 뭐였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십 대 위의 할아버지까지는 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백 대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또 백 대, 이백 대, 삼백 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기고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무 살이 넘도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는 자기의 처음 조상이 원승이었다고 스스로없이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학교에 가면 원승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원승이가 네 처음 조상일 것 같니? 너는 지금 과학을 한다고 공과 대학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네 처음 조상이 원승이일 것 같니?” 이렇게 진지하게 물으면 “원승이는 아닐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원숭이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기에 무심코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만 상식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존재했을까요?”

지난 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지금부터 100만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구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말합니까? 약 50억 년 전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 2. 인간의 기원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이제부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 A. 진화론

첫째 이론은 ‘무’(無)에서 ‘유’(有)가 나왔다는 ‘진화론’입니다. 이 이론은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생명에서 질서가 낮은 아메바가 나오고 거기서 고등 질서를 가진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과서들과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의 대부분이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이들에게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라고 물으면 원숭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생명은 다 어디서 나오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이야기해도 거짓말입니다. 죽은 개나 돌덩어리는 결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며 상식적인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제 종이 바뀌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상과 온 우주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고양이가 개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없고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지금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숭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숭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으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화석에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속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계가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설계하지 않고 불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경, 마이크,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이 설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종로에 가서 얼마 전에 새로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상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압니다. 불신 과학자들만 이런 상식을 모릅니다.

그러면 지혜가 많다고 공언하는 학자들, 즉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녔다는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우주 공간이 ‘빅뱅’에 의해 갑자기 생기고 무생명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원숭이가 생기고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하고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믿고 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항상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믿는 것이므로 종교 체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다 알고 초등학교만 다닌 노인들도 다 압니다.

## B. UFO 이론

둘째 이론은 UFO 이론입니다. 요새 UFO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다른 별에서 고등 생명체가 와서 지구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본 다니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는 원래 진화에 의해 동물과 식물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0년 전에 우주에서 지적인 초인간들이 와서 유전 공학을 통해 땅에 있는 원숭이들을 변화시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런 뒤 지금부터 약 7,000년 전쯤에 이 땅에 다시 와서 그중에 두 명을 취해 유전 공학을 좀 더 잘 이용해서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현시대 인류의 조상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상 과학 영화들은 대개 외계에서 UFO와 외계인들이 와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UFO 이론으로 인해 그런 영화들과 책들이 지금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허튼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다 성경의 연대와 맞추려고 7,000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온 우주와 땅과 첫 사람 아담과 이브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처음 생겼습니다(27쪽의 ‘인류 역사 타임라인’ 선도 참조).

얼마 전에 ‘2012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각본이 어떻습니까? 노아의 존재나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종말을 맞아서 노아처럼 배를 짓고 산 위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성경을 따서 줄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작가들은 많은 경우 성경에서 어떤 단편적인 것을 추려서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한 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UFO 이론에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UFO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초인간들이 와서 유전 공학을 이용해 지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적 설계를 믿고 있습니다. 즉 설계자가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초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초인간들이 지적 설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이 초인간들도 누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번 볼만 합니다. 돈 모아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다녀오면 매우 좋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원시인들이 짐승 가족으로 몸의 앞부분만 가린 채 동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글도 못 쓰는 무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들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UFO 이론을 펴는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와서 이스터섬의 석상이나 영국의 스톤헨지 고인돌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다 만들어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로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수명이 500세나 되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쇠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시대 인류가 더 지적으로 우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만은 지난 4,000년 동안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교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하고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지적 설계가 없이 지적인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말이 막히면 외계에서 UFO가 와서 고대의 건축물들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자들의 이론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되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 놓은 인본주의 철학 체계, 종교 체제의 핵심입니다.

### C. 하나님의 특별 창조

셋째 개념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입니다. 진화론과 UFO 이론 그리고 특별 창조 외에는 기원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창조의 핵심은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모든 것을 만들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가 사람과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가장 과학적인 진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그냥 생길 수 있을까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질량이나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보존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온 우주 만물의 질량을 재면 똑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에너지를 재면 똑같습니다. 1,000년 전도 똑같고 2,000년 전도 똑같고 3,000년 전도 똑같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시간이 0일 때에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기원이 있으므로 분명히 0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즉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에너지와 질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생겼을까요? 그냥 생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그냥 생기면 과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후엔 보존이 됩니다. 즉 질량이나 에너지는 생성된 이후로는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우주 공간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가 생겼을까요?

사실 UFO 이론은 진화론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 공간에 모든 별들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모든 창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견해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화 아니면 창조이 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둘 중 하나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존재한다. 나는 어떤 존재다.” 등과 같은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즉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한 것은 시간이 0일 때를 가리킵니다.

영원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유한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과거의 영원(Eternity past)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 이후에 시간이 생겨나면서 처음에 시간이 0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의 시점으로부터 지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약 6,000년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미래의 영원(Eternity future)이라는 차원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27쪽의 ‘인류 역사 타임라인’ 선도 참조).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우주 공간과 땅, 즉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고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 사람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의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됐다.”고 기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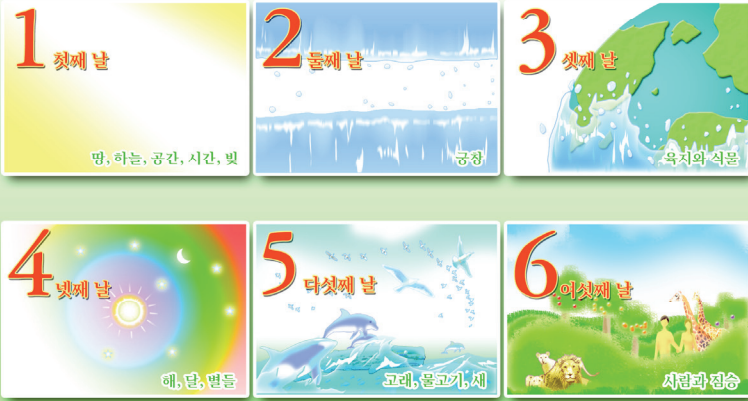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 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개역성경이 이 부분을 “산 영이 되었다.”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여러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은 다음에 자신의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 존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혼’, 즉 ‘살아 있는 전 인격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 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히10:39; 벰전1:9-10).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특별 창조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를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돈이나 선행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 체계에 창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 체계 중에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에 왜 그것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서는 사람이 왜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약

##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는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성경전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에서 저는 창조를 주장하는 믿음 체계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를 믿고 창조 사실을 지지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연구하고 책을 펴서 알리는 일들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불교에 창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사람이 살다가 나쁜 일 하면 벌레도 되고 잘하면 그다음에 또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하면서 빙빙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힌두교나 뉴에이지도 100% 불교와 같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5월 21일이 석가 탄신일입니다. 이번 석가 탄신일에 방영된 어떤 TV 프로그램에는 개가 불교 신도들과 함께 부처를 공경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거기 있던 사람이 이 개는 전생에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게 불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 '견부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는 '우부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TV 방송에 이런 것이 나오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종이 불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교황이란 말은 교회의 황제라는 말입니다.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부들이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유신론적/진화의 창조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절대적 창조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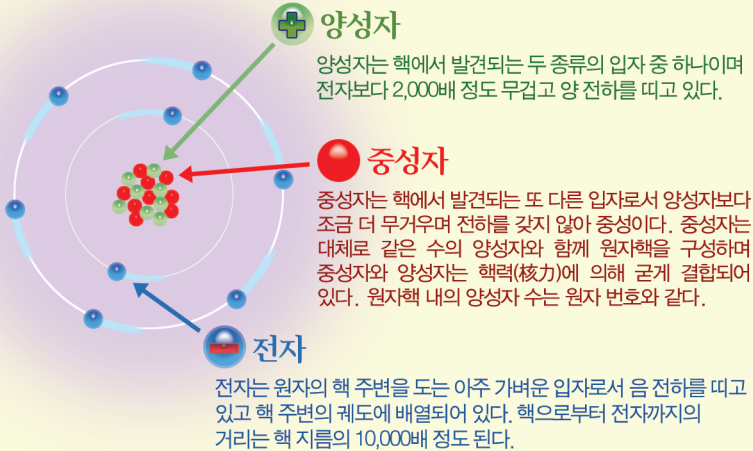
그다음 이슬람교를 봅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도에게 창조를 믿느냐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슬람교 학자나 종교 지도자 중에 알라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들고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연구하고 책을 써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창조를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을, 하나님이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해서 6일 동안에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하는 실질적인 창조를 믿는 체계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언급합니다. 이 종교를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앞으로 천주교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핍박할 마귀의 믿음 체계입니다. 그 안에는 이성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마귀의 속박으로 이끄는 무서운 체계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인들만 따로 가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옥에는 여러 개의 지옥 층이 있는데 그중의 한 층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뉴에이지 종교는 지금 온 세상에 널리 파급되고 있는 이단 사상입니다. 뉴에이지는 힌두교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미국/유럽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회를 믿습니다. 끝으로 무신론이 있는데 그런 헛된 주장에서는 창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는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란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여섯 번 사용해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개념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 창조의 신비



원자는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말하는데 각각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양 전하를 띤 양성자의 숫자와 음 전하를 띤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이다. 원자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핵에서 발견되는 핵력이라는 응집력이다. 원자의 핵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기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초 물리에서 배우듯이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 그런데 원자의 핵에서 창조주께서는 전혀 다른 법으로 이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응집력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원자에 대한 가장 신비한 사실 중 하나로서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라 불린다. 만일 이런 현상이 없다면 온 세상 만물은 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시멘트 같은 힘은 중력이다. 원자를 함께 모으는 것은 전자기적인 견인력이다. 그러나 원자의 핵을 다 같이 모으는 힘은 현존하는 물질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무시하는 신비의 힘이다. 이 힘은 지금까지 사람이 이해한 다른 모든 힘과 다르므로 제대로 그것을 묘사할 방법이 없다(Robert E. Marshak, "PIONS", American Scientific

창조주의 큰 손에 의해 마치 큰 스프링처럼 둘둘 말려 압축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보통 핵 에너지라 불리며 이 에너지는 위력이 대단해서 원자 폭탄 하나가 수천 톤의 TN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전자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이 작은 원자에 이 같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의 우화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라도 원자의 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지적 설계가 들어 있고 창조주의 놀라운 힘이 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시다(창 1:1).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들고 있기에(히1:3) 원소들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주님의 날이 오면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타서 만물이 해체될 것이다(베후3:10-11).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재림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베후3:9). 창조주의 참오심의 끝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 창조와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람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신학교에서 창조가 틀렸다고 하거나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고릴라 같은 종류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올바른 창조 신앙이 확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원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기원에 관한 한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개의 믿음 체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 D. 과학자들의 증언

그러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명한 과학자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1967년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G. Wald)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는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잡지 중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잡지로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맨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1967년에 왈드 박사는 그 잡지에서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는 제목을 붙여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셋째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즉 진화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으로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이 글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 박사의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자기를 만들고 나중에는 심판한다는 개념 자체를 철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믿기로 했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거짓 시스템을 믿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솔직합니다. 물론 학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오고 오랜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연히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며 아메바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서 우주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폰 브라운 박사(Dr. Wernher von Braun)가 1972년 9월 14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 위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그로스 씨:

저는 온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창조론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인가에 대해 제 의견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창조라는 것이 어느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모든 것 뒤에 반드시 설계와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질서 정연하며 잘 짜인 계획이나 설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식물의 모든 종류가 살아남으려 하며 계속해서 퍼져 나가려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대규모로 작용하고 있는 강력한 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조그만 씨를 아름다운 꽃으로 발전하게 해 주는 질서, 즉 대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가득한 질서에 의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거하는 만물의 기묘함을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 밑에 깔려 있는 내적 설계를 보고 더욱더 놀라게 됩니다.

온 우주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는 과학의 영역 밖에 어떤 설계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과학적 방법은 온 우주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어떤 설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학 그 자체의 객관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온 우주가 어떤 비규칙적 과정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뇌나 눈과 같이 고도로 정밀한 기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비규칙적 과정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우주의 설계자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발견하는 많은 기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주었으므로 언젠가는 그 위대한 설계자의 의도나 목적이 없이도 대자연의 기본 법칙들을 설명하는 창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과학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태양을 보기 위해 촛불을 켜야 한단 말입니까?

지적이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설계자를 그려서 보여 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물리학자가 전자를 그려낼 수 있습니까? 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밤중에 비행기를 안내하기도 하며 매우 정확한 것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우주에 설계자가 존재함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창조자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물리학자가 있다면,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무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전자들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합니까?

그가 전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다른 분야로부터 매우 제한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전자에 대한 ‘참으로 영성한 기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자료들로 전자에 대한 영성한 모델을 만들어 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델, 즉 창조론 같은 모델에 대해서는 알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위에서 설계자라는 측면에 대해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 혹은 과학자들이 - ‘설계에 의한 창조’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연에 의한 진화’에 대한 과학적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 설계자/창조자를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어떤 최종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자료들 간의 상호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유용하게 무엇인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어떤 이론을 배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 근무하는 우리는 달에 보낸 아폴로 우주선이 그토록 놀랍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종종 요청받곤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변이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간과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과학적 정직성의 관점에서 저는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들, 즉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이론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가 우연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참으로 큰 실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폰 브라운(Wernher von Braun)

이 얼마나 진솔하고 겸손한 편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앞에 겸손하게 서려는 과학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매우 많습니다. 수많은 획기적 진보와 발견과 발명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과서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적 지성인들의 상당수가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Robert Boyle), 패러데이(Michael Faraday), 플레밍(John Ambrose Flemming), 주울(James Joule), 켈빈(Lord Kelvin), 린네(Carolus Linnaeus), 맥스웰(James Maxwell), 멘델(Gregor Mendal), 뉴턴(Isaac Newton), 파스칼(Blaise Pascal), 파스퇴르(Louis Pasteur) 등.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붕괴된 진화론의 사상을 과학적으로 거부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 E. 그냥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물이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은 사실 양심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불가능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입이 좀 써서 집에 가면 오렌지를 한두 개 먹고 잡니다. 미국산 오렌지나 제주도에서 나오는 노란 귤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렌지나무나 귤나무가 노란 물을 쪽쪽 빨아들이니까 과일이 그렇게 노랗게 나오니까? 아닙니다. 포도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어제는 귤을 사러 갔는데 귤이 없어 포도를 샀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오는 씨 없는 포도는 참으로 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땅에서 단물을

쭉쭉 빨아들여 모아 놓으니까 포도가 달게 됩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땅에서 물만 빨아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땅에서 물만 쭉쭉 빨아들이는데 하나는 노란 색의 오렌지를 맺고 또 하나는 붉은색의 달콤한 포도를 맺습니다.

또 젖소를 한번 보십시오. 젖소가 하얀 물을 쭉쭉 먹으니까 하얀 우유가 나오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는 무엇을 먹습니까? 녹색 풀이나 말린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얀 우유가 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손톱 깎을 때 손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딱딱한 것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특별히 딱딱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털도 새까만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까맣게 나올까요?

이제 사람의 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부가 같은 곳에 있으면 남편은 아내의 눈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눈을 보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그냥 두었더니 흙탕물에서 눈이 나왔다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생기는 것이 불가능한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왈드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간섭하는 것, 나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서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싫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 주는 사례가 눈 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곁에 널려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증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8-20).

## F. 창조 증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렌지, 우유, 눈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0.4-0.5%의 비율로 매해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인구 폭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68억 명인데 이 68억 명을 복리로 계산해서 2050년이 되면 인구가 90-95억 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은 ‘균일론’(Uniformitarianism)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균일한 비율로 변화했다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금부터 약 백만 년 전에 첫째 사람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부터 약 백만 년 전에 한 쌍의 인간 부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균일하게 0.4-0.5%의 인구 증가율로 백만 년 동안 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너무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인구가  $10^{2100}$ 명이 되어 됩니다. 10에 2100승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큰 숫자일까요? 온 우주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숫자가  $10^{130}$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불가능을 뜻합니다. 지금의 인구는 68억입니다.

반면에 성경기록대로 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만 그때부터 1,500년이 지나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난폭한 일들이 생기고 또 거인 종족들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서 거인 종족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노아의 식구 여덟 명만을 빼고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노아의 ‘방주’(Ark)에서 나온 사람이 여덟 명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4,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시 아들딸을 낳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섯 명, 즉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사람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0.4-0.5%의 인구 증가율로 4,500년 동안 불어내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50-70억 명이 됩니다. 50억이든, 60억이든, 70억이든 지금의 인구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수치는 진화론의 비현실적인 수치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제적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데이터는 실제적이고 현실 상황과 잘 맞으며 진화론과 달리 매우 과학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끈 대격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과 같은 재난도 있었고 자연히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0.4-0.5%의 평균 인구 증가율입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4,500년 동안 복리로 인구를 계산하면 대략 지금의 인구가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BC 2348년경에 발생했습니다. 성경기록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약 4,358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단군 할아버지도 그 이후에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기는 단군의 기원을 뜻하며 BC 233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단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잘 맞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역사 시대는 대개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대개 BC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BC 2000년 이전을 선사 시대라 하고 인도, 이집트 문명도 BC 2000년 이전을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 이전에는 그 모든 지역에 역사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 부근,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흠어지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온 세상으로 흠으시니까 사람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중국에도 가고 한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역에는 바벨탑 사건 이전, 즉 BC 2000년 이전에는 역사나 문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록과 잘 맞습니다. 심지어 단군기원도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여덟 명이 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배를 표현할 때 두 개의 글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배 '주'(舟)이

고 다른 하나는 배 ‘선’(船)입니다. 여기서 ‘주’(舟)는 조그만 배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큰 배를 가리킬 때는 ‘선’(船)을 씁니다. ‘선’(船) 자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 ‘주’(舟)에다 입을 나타내는 ‘구’(口)가 여덟 개(八) 합쳐서 된 글자입니다. 즉 큰 배에는 입을 여덟 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른 여덟 명을 뜻합니다. 즉 노아가 탄 큰 배에는 여덟 식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義)를 얻습니다. ‘의’(義) 자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羊) 밑에 ‘나’(我)라는 존재가 무릎 꿇고 항복하면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흉악하다고 할 때의 ‘흉’(兇) 자를 보기 바랍니다. ‘흉’(兇)은 형이 도끼를 내려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누가 동생을 내리쳤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 ‘흉’(兇) 자입니다.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벨탑에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의 일부가 중국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상형 문자 안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중국 사람들의 상형 문자 안에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미션하우스에서 나온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을 사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율,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 심지어 단군기원 등의 모든 자료들이 성경기록을 지지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계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세상에 나온 지 이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비행기를 못 타 봤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멋진 기계입니다. 비행기가 뜨면 그 안의 모든 것이 마치 땅에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급격한 기류 변화가 생기면 조금 흔들리지만 대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비행기는 처음으로 목사의 아들들인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매우 많습니다. 작은

비행기는 백만 개 그리고 우주 왕복선 같은 복잡한 비행기는 적어도 천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 터져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만들까요? 이런 기계가 그냥 생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쓰고 고안을 해서 천만 개 부품을 다 설계하고 청사진을 만들어 그것과 대조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조립할 때 드디어 비행기가 설계한 대로 나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나로호라는 우주 발사체, 즉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의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 공간의 미아가 되어 아무 임무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도 또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설계한 대로 제품이 나오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주 발사체 같은 것이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품 천만 개를 10년 동안 흔드니까 우주선이 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두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람이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제작해서 조립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는 큰 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고 또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우리 은하'라고 하는 넓은 우주 공간에서 보면 거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티끌만한 존재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구를 품고 있는 은하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 압니까?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앞에서 비행기 부품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많아야 천만 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별이 천억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부딪치지 않고 계속해서 궤도를 유지하며 돌고 있습니다. 놀랍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전체 은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수십 개 모이면 은하군이 되고 은하군이 모여 은하단이 되며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은하단이 모이면 우주가 됩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 안에 은하가 몇 개일까요? 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별이 몇 개일까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즉 무한개의 별이 지금도 질서 정연하게 각각의 궤도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질서를 가지고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처럼 전혀 흐트러짐 없이 회전하는 것이 설계 없이 가능할까요? 그냥 흔들든지 혹은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에 의해 무작위로 평 하고 튀겨 나오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숫자의 별들과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또 그것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에너지나 질량이 그냥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빅뱅’에 의해 공일이 평 하고 튀겨 나오면서 다른 별들과 함께 지구와 태양이 나오더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로 우연히 정해지게 되었다고 하면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평 하고 뺑뺑이를 튀기듯이 튀겼더니 태양과 지구가 나오면서 거리가 딱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로 고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지구에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이라도 멀면 추워서 다 죽고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다 타서 다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딱 일억 오천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창조물이 지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래야 할까요? 처음부터 그래야 합니다. 처음의 한 달만 거리가 달라도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둘 사이의 거리가 일주일만 달라도 다 얼어 죽거나 타 죽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일주일만 태양이 뜨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것이 얼어 죽습니다. 일주일만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오면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규칙이 맞고 질서가 있어야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이 맞으면 모든 것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처음 생기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질서를 갖추어야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딱따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따구리는 ‘딱딱딱딱’ 하면서 머리로 나무를 쪼입니다. 1분 동안에도 수십 번씩 나무에 머리를 박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따구리의 머리에는 완충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바퀴에 달린 완충 장치, 즉 쇼크(충격)를 흡수하는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라는 장치가 쇼크를 흡수하므로 운전자는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딱따구리의 부리와 뇌 사이에도

이런 충격 완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완충 장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딱따구리는 하루 지나면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몇 번만 ‘딱딱딱딱’ 하고 헤딩하면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종족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따구리가 지금까지 보존되려면 처음부터 완충 장치가 제대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딱딱딱딱’ 하며 머리를 받아도 죽지 않고 알을 낳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이주 본능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 본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존재하던 철새들은 다 떨어져 죽었을 것 아닙니까? 바다를 가다가 새끼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되고 제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모두 주눅이 들어서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것은 다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체적비로 약 21% 들어 있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도 죽습니다. 독이 됩니다. 산소가 너무 적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약 21%만 있어야 됩니다. 21%입니다. 그러면 21%가 우연히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의 여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주를 만들면서 지구에서부터 약 40km 상공에 성층권이라는 층을 만들고 거기에 오존을 두셨습니다. 이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이 사람이나 생물에겐 투사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피부암, 백내장 등이 생겨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존층 역시 처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땅이 생길 때부터 혹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오존층이 있어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구는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티에, 칠레에 지진이 나서 지구 축이 조금 더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야만 사계절이 생깁니다. 여름과 겨울이 생깁니다. 이런 기울기가 있어야 곡창 지대가 북쪽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지금도 캐나다와 미국이 식량을 대주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곤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므로 미국이 식량을 팔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북반구에 곡창 지대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금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23.5도 기울기 등은 성경에 없으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어떤 신이 지구를 등에 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틀라스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아틀라스 타이어’, ‘아틀라스 배터리’ 등. 아틀라스는 지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런 아틀라스가 지구를 등에 메고 있다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면 지진이 생긴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즉 지금부터 약 2,000-3,0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살던 사람들이 아틀라스에게 문제가 생기면 땅에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대격변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읍기를 봅시다. 읍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읍기 2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읍이 우주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가 이렇게 허공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구가 허공에 달린 줄 알았을까요? 또 지구만 허공에 걸려 있습니까? 태양도 허공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이 줄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몽땅 다 허공에 그냥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공에서 그냥 들고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읍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는 지구 밖에 나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이처럼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직육면체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앞으로 쪽 나가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2절을 보면 땅이 둥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땅의 원’(circle of the earth) 위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땅을 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골동품이며 그 안의 기록은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구닥다리 책으로 인식합니다. 땅이 이렇게 허공에 들려 있다고 해도 “아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연필을 한번 올려놓기 바랍니다. 그것이 뜰니까, 안 뜰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 뜨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서는 물체가 허공에 걸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구는 허공에 매달려 뜰 수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땅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허공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땅은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합당하며 너무너무 신기하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런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탄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어리석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욥기 12장에서 욥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7-10절에서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일러 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네게 밝히 알려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사람만 모르지 심지어 물고기와 새와 땅도 다 안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 그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4,0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데이터, 즉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특별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3. 우리의 현재: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요? 또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축구팀은 무엇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까? 축구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가 열심히 스케이트를 탑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승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일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빗자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히터도 있고 볼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쓰려고 이것들을 만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것을 연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일에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찾아서 이루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재물을 모으려고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0년은 삼성가의 창업주 이병철 씨의 출생 백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분의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그분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매우 열심히 자기를 억제하면서 성공하려고 시간을 쪼개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삶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며 시간을 아끼고 일본을 오고 가면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또 나라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일구어서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가난에서 빼내야겠다는 일념이 있어서 그분은 자기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호걸들의 삶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은 하나님 앞에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비참한 존재로 판명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스스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꼭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추구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는데 이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껏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야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다 소비하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혼자 지내면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래서 모두 친구를 사귀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 분이 서로 친근한 교제를 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하게 할 목적으로 처음에 그룹, 스랍, 천사장, 천사 등과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사14장; 겔28장).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그러면 내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너희가 행한 일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 공간에 사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입증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4:24).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첫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창1:26). 이것은 하나님과 사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특성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이런 특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 “깃털이 같은 새끼리 같이 모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존재들과 사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특성과 본성과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적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벽함을 증명해서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 주시려 하셨습니다(엡3:9-11).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의 일부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 의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려면 자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이 자유 의지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1:4).

로봇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시간 놀면 끝입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존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잘못을 범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신 것이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 제게 딸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좋은 차를 한 대 사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일도 보고 원하는 것을 제때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아서 오용하고 남용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다든지 혹은 차를 가지고 다른 악한 일들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선물을 준 것이 잘못이 아니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선물을 준 사람의 뜻을 어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나무를 두었느냐, 왜 자유 의지를 그들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악과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대의 모든 자유 속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아니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시금석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무한대의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 안에 들어 있는 조그만 시금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로봇으로 만들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더 싫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기를 그들은 분명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좋고 중요한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선하게 그것을 쓰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남용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과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혼(魂)이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16:26)

여러분 주위를 보기 바랍니다.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혼보다 귀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3:16-17).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인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개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듯이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 4. 우리의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부터 사람의 미래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생은 나그네 길ियो 여행이다.”라는 말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도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무조건 핸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차가 한 대라도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다 어딘가 목표를 정해 놓고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지도를 보든지 머릿속에서 길을 생각하면서 최종 종착지를 향해 갑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스프링벅’(Springbuck)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빨리 달러가므로 이 양들의 이름은 ‘스프링벅’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산양들은 대개 큰 떼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떼를 지어 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무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잔디를 먹어 치우면 뒤에 있는 것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무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뒤에서 미니까 밀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에 있는 것들이 뛰어나가니까 자기들도 그냥 뛩니다. 이름이 ‘스프링벅’이니가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이렇게 한 떼의 양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뛰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양들과 비슷하게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 사는지, 걷는지, 뛰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남들이 하나기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을 따라 걷거나 뛰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까? 남들이 뛰니까 통통통통 뛰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오십이 넘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초와 같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길이가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새 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미 ‘새 초’에서 삼분의 이가 타 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이처럼 타서 날아갔고 이제 삼분의 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70-80세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다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은 아직 이십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인생은 많이 타서 이제 10센티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즉 이것만 타면 제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 확실히 가는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무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 너희 나이에서는 무덤, 죽음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애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쪽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무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의 삶의 연수가 70-80세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또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정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늦추신다면 아마 다음 세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백세까지 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장수(長壽)가 많은 경우에 재앙입니다.

공부를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서 취직했다가 오십 세에 직장에서 나오면 그 뒤 오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았니?”라고 물어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오십 세가 되면 대부분 직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별 수입 없이 나머지 오십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을 보니까 죽음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히2:14-15).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뭐가 두려워? 나는 죽을 때까지 용기 있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람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이라 2개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그렇게 큰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대개 그와 같은 판정을 받으면 얼굴이 새까매질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와 같은 짐승도 도살장에 갈 때는 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와 무슨 일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면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하고 맺은 약속은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딱 약속이 잡히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아니하던 정확하게 제시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어떻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무엇을 하고 또 어느 계절에 거기 가는 것이 제일 좋냐고 물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손님이 올 때마다 대여섯 번 거기에 갔으니까 이런 정보에 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담요 하나 갖고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가서 하늘 바라보며 잔디에 누워서 한 잠 자면 정말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보시면 “야, 정말 이 많은 물이 어떻게 이처럼 쉬지 않고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떨어집니다. 여하튼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누가 물으면 저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행지나 내가 과거에 해 본 어떤 일을 누가 물으면 어느 정도 소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실험해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같은 인물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천국에 다녀왔다거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죽음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지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특별하게 살리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었다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몇 가지 원소(元素)로 이루어진 물질에 지나지 않으므로 생명이 다하면 그냥 뼈가 썩고 살이 썩어 없어져서 원래의 원소들로 이 땅속에 들어가고 이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윤회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잘 알다시피 진화론자들 중에서 한 부류는 ‘윤회’를 믿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 개처럼 산 사람은 개로 태어나고 소처럼 산 사람은 소로 태어나고 벌레같이 산 사람은 벌레로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벌레로 열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면 다음 생에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맨 끝에는 신(부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열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합니다. 지금 죽이는 벌레나 짐승이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생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다음 삶에서 짐승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윤회 사상이 서구로 넘어가면서 서구 사람한테 “당신 잘못 살면 다음 세상에서 개나 소가 됩니다.”라고 말하니 그들은 이런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사람은 죽은 뒤 다시 사람으로만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물론 뉴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진화해서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의 특징은 일단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메바가 나오면 아메바에서 양서류가 나오고 어류가 나오고 조류가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맨 끝에 포유류가 나오고 포유류 중에 제일 질서가 높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화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종교적인 진화론으로 바뀌면 사람이 끝이 아니고 그다음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람이 영성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진화하면 신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뉴에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를 잘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윤회가 나옵니다. 뱀은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가르친 첫째 원리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 수는 있으나 절대 죽지 않는다는 윤회 사상을 마귀는 가르칩니다.

또 여기에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그들은 무엇이 될까요? 신이 됩니다. 그리고 열반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과 이브가 누구처럼 된다고 말할니까? 바른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God)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신(god)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뱀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만 차지하려 하고 너희에게는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인 뱀이 에덴동산 때부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 윤회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신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마귀는 영성 훈련

같은 것을 통해 사람이 신이 되도록 부추겼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교도들의 신앙 안에는 신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각종 고등 영성 기법이 들어 있습니다.

증산도에서는 ‘공중 부양’(Levitation)을 합니다. 즉 사람을 공중에 뜨게 만듭니다.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에서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유체 이탈’(Astral projection)을 시도합니다. 또 모든 이교도 문화에서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나 음악을 빨리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들도 이 기법을 받아들여 방언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랄랄랄라!”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무아지경에 이르면 곧 “열반에 이른다.” 혹은 “입신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마귀의 영성 훈련의 하나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마귀의 사주에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고, 사람이 각각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는 상대 윤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요즘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간을 해도, 살인을 해도 나만 옳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 갓난아이를 집에 두고 PC방 다니면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본성의 애정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이상을 가지고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윤리와 도덕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국가로 시작했으나 이제 미국은 진화론을 신봉하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상대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와해가 되면서 사악한 것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의 바른 정신이 남아 있어서 미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존재하고 가장 악한 것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있고 가장 사악한 사탄주의자들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며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다 보니 미국에서는 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초 단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한국도 이 점에서는

미국과 똑같거나 그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가 득세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근친상간과 같은 일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단 교리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윤희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키우는 아이가 사실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전 세상에서 넘어온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굳어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일이 생깁니다. 자기 아기가 전생에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대주의에 의해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식 마치고 알몸 뒤통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씩씩하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하고도 전혀 잘못을 모른 채 경찰 앞에서 키득키득하는 일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윤희
2. 영성 훈련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것
3. 상대적인 도덕과 윤리 개념

지금 세상은 마귀의 이런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 얼마 전에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자마자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개념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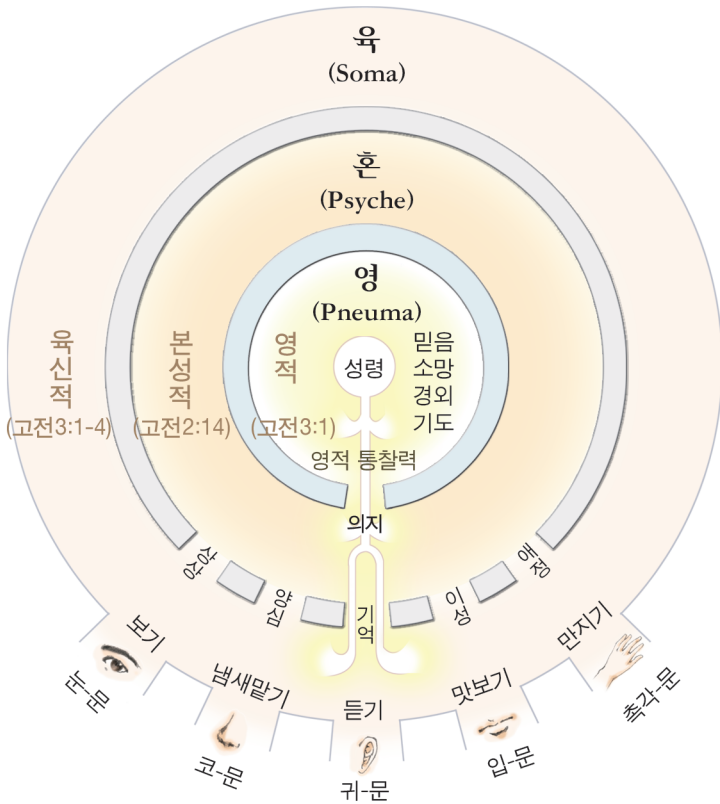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말하거나 빙빙 돌아서 여러 단계의 삶을 거쳐 나중에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9:27)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은 영혼과 육의 이중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 혼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자체를 가리켜 혼이라고

# 사람의 세 요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사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은 혼입니다. 물론 사람 안에는 영적 요소, 혼적 요소, 육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구분할 때에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히4:12; 살전5:23).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초적 의미의 사람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정동수라고 하는 혼으로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을 구원한다는 말도 맞고 혼을 구원한다는 말도 맞으며 몸을 구원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영과 혼에 변화가 생겨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위치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옆에 있습니다(엡2:6). 그렇지만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고전15:51; 살전4:16). 그래서 다시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몸, 즉 새로운 몸을 이루어서 완벽한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몸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몸은 아무개 목사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쓰던 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몸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 즉 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혼입니다. 지금 이 몸은 장차 무너지게 될 껍데기 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잘못 생각하다 보니 산소에 가서 땅에 엎드려 크게 절을 하고 술을 부어 올리면서 무덤 속에 진짜로 자기 부모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부모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에 있습니다. 무덤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다.

산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쓰던 집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미 몇 년 지나면 다 썩어서 부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자매들이 다시 모여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형제들 간에 사랑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따라 초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자는 이 껌데기 육체는 먹을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심판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볼펜을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설계물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정말 설계대로 나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펜 공장에 가서 보면, 볼펜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끝부분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볼펜에 인쇄된 것들이 제대로 인쇄되었는지, 색깔이 맞는지 등을 판단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 따로 모아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은 단지 볼펜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설계하여 만드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다 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되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기 바랍니다.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면 심판이 앞에 서서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심판하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창조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해서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갚아 주려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고 폄박해도 이런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 영광과 죽지 아니함을 주십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올인’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광,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주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나 윤회론 등을 들고 나와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격노와 진노로 갚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 가장 속상합니까?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금메달을 땀는데 반칙을 했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일등을 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도 속상한데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재판관들(사사들)이 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또 공정하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에 널려 있는 무수한 창조의 증거들을 평생 보고 살면서도 거기에

반응하여 참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격노와 진노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즉 성경의 진리는 맨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도 나중에 몸이 부활합니다. 불신자가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불 호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사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2-15).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물론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계20:4-6).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처음에 실패했고 지금 두 번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괜찮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시행착오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문제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한 절대로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인간의 기본 상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창조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 3. 하나님의 해결책

위에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작품이 잘못된 것을 알면 누구라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불펜이든 배든 자동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고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인 사람을 고치기 위해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람의 타락 이전에 하늘에서는 천상의 창조물 중의 일부가 역시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과 생각이 창조물과는 다른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또 영계에 있는 모든 천상의 창조물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지극히 뛰어난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온 우주 공간의 영적 창조물들에게 자신의 길과 지혜의 뛰어난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사람이 죽는가를 알려 줍니다. 왜 죽는지 알면 사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로 가면 “모든 것이 그냥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든지 또 윤회해서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는 사람이 늙으니까 죽는다고 나 병이 들어 죽는다고 하며 또 죽는 것은 그저 자연계의 일반 현상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늙으니까 죽고 병드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늙고 병이 들까요? 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이 발생할까요? 이 세상의 누구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해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 종교들의 경전이나 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의 책에는 이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도 신약이 아니라 구약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분의 법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전달해 주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죄와 불법이 생긴 이유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왜 죽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 호흡이 멈출까요?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어디서 무언가가 분리되면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과 혼이 아버지의 집인 몸에서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영과 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가고 몸은 여기 무덤에 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분리, 즉 육체적 분리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이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안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담은 900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이것은 곧 육체적 죽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죽음이 이들에게 생겼음을 뜻합니다. 물론 그들은 약 900년 뒤에 육체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죽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전에는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어느 때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죽음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살려 주시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중생’(Regeneration)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사람에게 있어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죽음 혹은 사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사망은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반면에 이 둘째 사망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영원히 불 호수 속으로, 캄캄한 데로 들어가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불 속인데 왜 캄캄할까요? 엄청난 온도의 뜨거운 불은 까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므로 전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갹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2:13).

아담은 죄를 지은 뒤에 곧장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구백년을 더 살았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죽는 일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신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영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기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들과 범법들로 인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엡2:1).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너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병든 채 태어나며 그래서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합니다.

또다시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표범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온 몸에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범이 자기 노력으로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새까만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형 수술해도 피부가 새까맣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언자는 악에 익숙한 너희도 너희 힘으로 너희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악에서 떠나, 죄를 버리고 떠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죄의 목록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본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본 설정치’(Default)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요 8:44; 요일3:8).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 사람의 상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보소서, 내가 불뿔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 다(시51:5).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의 몸에는 첫 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죄를 지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 '모태 죄인'이라고 해야 맞는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롬7:18).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자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엡2:3)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렘 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이다(엡2:1).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렘13:23).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그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책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치료책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죽음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치울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죄를 제거할 분이 외부에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제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 공간에도 없습니다. 짐승 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야 합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1절을 잘 보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일조, 주일성수, 교회 봉사는 우리의 저주의 몸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아예 법 시스템을 바꿔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가면, 즉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곳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않을까?

# 종교와 복음



영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세 혹은 영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산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사유의 핵심은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 선행, 고행, 예배, 문화, 희생, 자선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가인의 길이요, 종교라고 부른다(유11).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에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크게 꾸짖으셨다(마3:7; 23:33).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3회나 종교라는 말을 쓰면서 종교 체제 하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기술하였다(행26:5; 갈1:13-14). 종교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옥 불 속으로 그를 밀어 넣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3:23).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면 다 더러운 존재로 판명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 안에 있는 의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라는 데 있다(사64:6).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 즉 사람을 지은 창조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의가 아니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뒤에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15:2-4; 20-23).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일조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런 사람을 해방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롬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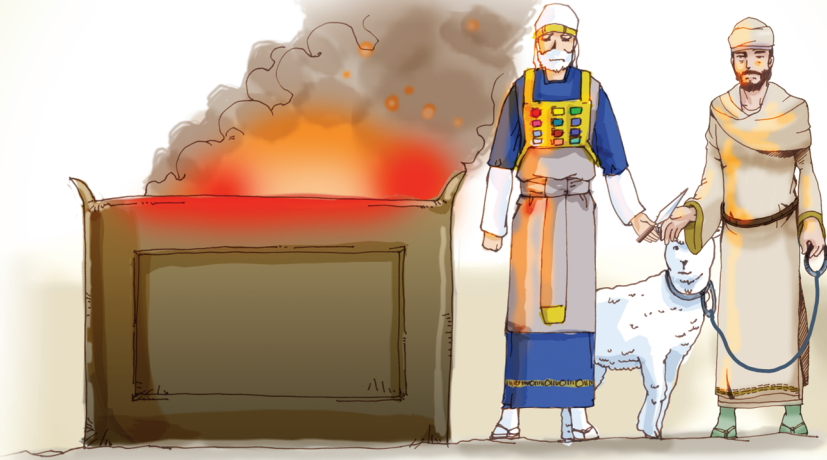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이 세상 종교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입니다. 이 세상 종교에는 창조가 없으며 또한 심판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교는 만물이 쇠퇴하고 사람이 죽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종교에는 대신 속죄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대신 속죄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동시에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는 완벽한 존재'가 속죄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대신 속죄', 즉 대속의 은혜입니다.

네팔이나 부탄 같은 후진국에 가서 이교도들의 속죄 풍속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들도 죄와 양심의 문제로 인해 어떤 영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와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에 닭이나 어떤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마귀들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속죄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 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나온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대신 속죄가 있어야 살 수 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자기들의 신에게 대신 속죄 의식으로 희생물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개한 아프리카 종족들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 속죄입니다.

# 대신 속죄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라(요1:29).

여호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창3:21)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 준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사형각 교육으로 잘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의 제사장에게로 간다(레1:2-9).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인수하여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칼로 직접 짐승의 목을 찌른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몸에서 튀어 나온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 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한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 불의 정죄가 있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일은 또 유월절(출12)과 속죄일(레23:27-32)에도 이루어져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흠 없는 어린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이다(히 10:4).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히9:12).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마27:51; 히6:19-20). 그분께서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제거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히10:18).

그러면 대신 속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습니다. 그런데 왜 짐승을 죽입니까?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짐승은 아무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무죄한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는 “이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바로 대신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속죄 개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샤머니즘을 행하는 아주 미개한 종족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을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레1:2-9). 성막으로 가면 제사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칼을 넘겨줍니다. 당사자는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로 옮깁니다(전가 행위). 그 뒤에 직접 칼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주지 않고 오히려 죄인보고 짐승의 목을 따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지은 사람이 폭 하고 짐승의 목에다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소리를 지르고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짐승의 목을 따는 일을 통해 죄가 있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짐승을 조각조각 나누면 제사장이 그 나눈 조각들과 내장과 다리를 모두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조각들이 지글지글하며 탑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은 “아 죄가 있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구나. 지옥 불이 또 남아 있구나.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예식을 통해 그 죄 없는 짐승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죄인을 위해 속죄합니다.

이런 희생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죄 없는 무언가가(짐승이) 죽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짐을 알려 주셨고 또 동시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의 형벌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구약의 율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대신 속죄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는데 이때 죽는 짐승은 사실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빼고는 짐승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아무리 가져다 바쳐 봐야 하나님이 죄를 덮어 주실 뿐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희생으로는 완전 속죄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 갔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히10:4).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어떤 존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공간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보다 나으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죄 없는 존재’말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 외에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공간에는 사람의 죄를 속할 완전한 희생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영이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히2:16).

땅속이나 바닷속에는 어떨까요? 완전한 희생물이 거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죄가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후5:21)

은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속죄 교리입니다. 대신 속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십자가 사건의 진실이 왜곡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깨에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고후5:21).

이로써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지어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분 안에서 아주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족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일시에 단 한 번에 영원토록 끝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번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드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1-12).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영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 세계와 양심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구원 방도 중 하나라는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이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져다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해결책에다 우리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뽑기 놀이’할 때 가진 돈을 몽땅 넣고 내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겠다고 다짐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신뢰했으니까 됐다. 네 행위와 상관없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너는 이제부터 내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생명 보험과 비슷합니다. 생명 보험이 평상시에 효력을 발휘합니까? 생명 보험은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사람이 죽어야 발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예수님을 믿는 경우 인생을 살아가며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3장

# 회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무어라 가르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회개를 이야기하니 까 어떤 분들은 벌써 “구원받으려면 많이 울어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펄펄 흘리고 이삼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소나무 붙잡고 씨름하면서 흔들다가 뿌리째 나무를 하나 뽑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 다수의 회개 경험이 이러합니다. “기도원 가서 나무 붙잡고 밤새도록 회개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나도록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스타일의 회개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 1. 회개: 구원의 기초

그러면 성경적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는 구원의 밑바닥 기초이므로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초는 회개이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짓고 난 집이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또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믿는 가운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기초가 확실하게 서서 이 확실한 회개 기초 위에 구원을 쌓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서 그를 흔들어도 별로 요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즉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영접하라고 하니 영접결에 영접 기도를 하고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최근에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이티, 칠레,

중국 등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기초가 부실한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신자가 와서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핍박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안 되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에도 사람이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초가 든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구원받으셨더라도 회개라는 기초가 정확하지 않거나 조금 부실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회개가 무언가를 정확히 않으므로 부실 기초를 치워 버리고 확실한 기초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강력한 기초 위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르게 구원받으려면 꼭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동시에 같이 다닙니다. 즉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회개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바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함께 다닌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근에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보내는 선교 뉴스레터를 봤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회에서 0000명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분은 적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인도에 갔더니 00000명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분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며 대략 1년에 000000명 정도 구원을 한다고 자랑스레 말합니다. 그분이 제시하는 이런 수치는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연간 보고에는 1년 동안 총 몇 만에서 몇 십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필리핀을 십년 동안 다니면 아마 족히 백만 명은 이미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도, 필리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그 지역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가짜를 양산해 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교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 유대인 삼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오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용하여 선교사나 목사가 매번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숫자를 기록하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무수히 말씀을 증언했지

만 거기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적었습니까? 거의 안 적었습니다. 필요할 땐 하나님이 적으시고 필요치 않을 땐 안 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교회 후보나 혹은 선교 보고서에 자기들이 구원한(?) 사람들의 총계를 명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 선교사를 보내고는 선교사의 총계 보고에 눈을 돌리는 것 역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보에 있는 대로 정말로 25명이 구원받았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수치들은 결국 다 사람에게 보여 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을 전도하라고 내몰고 목사는 교회에 가만히 있다가 몇 명 구원하였는지 보고를 받는 것은 마치 강패 두목이 졸개들을 풀어 할당량을 정해 주고 앵벌이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는 숫자 세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손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손을 들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사람이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경우 손을 안 들어도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과 구원받은 사람의 수와 헌금 액수를 세서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발표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목사는 마귀의 울무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숫자 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잘 보기 바랍니다. 놀이터에 가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교회의 명령에 따라 그 아이들에게 가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아이들은 손을 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세 아이가 손을 듭니다. 전도자는 기뻐하며 교회 목사에게 돌아가 오늘 세 명 구원받았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식의 구원은 소위 ‘영접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보통 사영리(四靈理)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그 안의 것을 설명합니다. 사영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합니다. 원래 사영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아니라 ‘다섯 가지 영적 원리’, 즉 오영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원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려니 듣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첫째

것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첫째 원리를 뺐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CCC의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빼 버린 첫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 전도에서 이와 같은 첫째 원리가 제시되지 않으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달콤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또 회개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대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합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의 경우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고는 기도를 같이 해서 구원받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의 수를 세서 교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한(?) 경우 전도 상을 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회개가 없이 된 것이므로 부실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쉬움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믿음이 없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일은 자유 의지와 생각이 없는 로봇에게는 가능하지만 사람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 어떠하였습니까? 대상에 따라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니고데모같이 학식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며, 세관의 우두머리인 삭개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우듯이 구원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학식 수준과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복음의 에센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이 경우

회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때, 바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복 받는다는 이야기, 성공한다는 이야기, 귀신 쫓고 뒤로 넘어지는 이야기,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심각하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회개를 선포하면 교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 목회 성장학 세미나에서는 절대로 죄인이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회개를 선포하지 말라고 목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인이 줄어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줄든지 안 줄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가짜들만 잔뜩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잘 이해하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로 이런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많든지 적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 2. 회개의 정의

이제부터 회개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영어로 회개는 ‘리펜트’(Repent)라고 합니다. 명사로는 ‘리펜턴스’(Repent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리펜트’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한자로는 보통 ‘개과천선’(改過遷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개처럼 살던 사람이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 개과천선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깨달은 뒤에 큰 슬픔이 밀어 닥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잘 하면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펜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펜트’는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만 나타나서는 성경의 ‘리펜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펜트’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계획해 오던 것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 궁극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입증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서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펜트'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말로 고백하고 그분이 계신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냅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리펜트'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뀐 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안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죄를 미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없다고 하고 지옥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생각이 변화되어 마귀가 있어서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곳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목표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 이런 변화가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보면 “저 사람 뭔가 바뀌었는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율법 안에 거할 때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성경적 회개를 하기 전까지 그는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배운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알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고 삶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한 이후 평생 동안 한 일이 사도행전 26장 19-21절에 짝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아그립바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상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회개를 정리하겠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생각을 바꾸어서 30도 옆으로 가도 ‘리펜트’한 것입니다. 50도 옆으로 가도 ‘리펜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리펜트’는 30도, 5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람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9-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련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 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자기가 회개한 뒤에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지옥을 향해 마귀를 쫓아가며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180도 돌이키라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외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평생 동안 그가 외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동안 이 두 가지를 외치며 살아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악을 향해 나아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180도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믿음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 3. 회개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제 회개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 위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추어지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예수님은 개역성경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를 삭제한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개된 성경입니다. 진짜 성경에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충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때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죽은 저 30만 명의 사람들이나 칠레에서 지진으로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46-48절을 봅시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개에 대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죄들이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회개가 빠지면 ‘양꼬 없는 찌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므로 부실한 교인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회개가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든든한 기초를 놓기 위해 제가 자주 회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역시 회개와 죄들의 사면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첫째 오순절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거기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단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적어 놔는데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뜻말을 붙여 놓고 거기다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선포를 마친 뒤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과거에 무지하던 때에는 사람들이 돌덩어리에 절하고, 짐승의 형상을 깎아 놓고 거기다 절하고, 돈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정화수 떠 놓고 별 보고 달 보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한 때의 이런 일들을 눈 감아주셨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제는 너희가 행하던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켜 일으키심으로써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상을 심판할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이가 심판을 할 테니 깨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4. 회개가 아닌 것

이제부터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 회개가 아닌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개선은 회개가 아니다

개선이나 개혁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열 번 하던 사람이 횡수를 줄이기 시작해서 아홉 번 여덟 번 일곱 번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은 개선입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악한 행실을 조금씩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성경적 회개를 설명하면서 지금 나가는 방향에서 180도 유턴(U turn)하는 것이 성경적 회개라고 했습니다. 180도에 못 미치는 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 개선이요 개혁입니다.

누가 악한 것을 개선하면 사람이 볼 때는 무언가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실을 조금씩 고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 2. 참회와 보속은 회개가 아니다

카톨릭교회에서 하듯이 참회하고 거기에 따른 보속 행위를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카톨릭교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신부에게 갑니다. 신부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면 신부가 죄를 다 듣고는 “마룻바닥을 열 번 닦아라. 무릎 꿇고 마루를 오십 번 돌아라.”라는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교인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속’(Penance)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여름에 저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까딱 잘못하면 사실 성지가 아니라 카톨릭교회의 유물들만 잔뜩 보고 오기 십상입니다. 성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의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교회나 그리스 정교회의 우상 단지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골고다 옆에 커다란 건물을 지어 놓고 그곳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그런데 줄 옆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카톨릭 신부들이 거기다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고해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분이 오더니 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지에까지 와서 어떻게 고해를 안 하고 갈 수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고해소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를 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고해 성사를 하면 다른 곳에서 할 때보다 연옥에서 더 많은 죄가 용서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수천만 번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 3.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을 살려 주고는 저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오 네가 다윗이냐, 내가 크게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는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나 이렇게 후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후회하고 후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삼십 개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그분을 판 다음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니까 그는 견디다 못해 하는 수 없이 은 삼십 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가져다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영어 성경은 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리펜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가롯 유다는 ‘리펜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180도 유턴을 하지 않고 거기에 못 미친 상태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리펜트’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가롯 유다처럼 뜻을 바꾸어 행동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분명히 은 삼십 개도 가져다주고 울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났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후회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성경적 의미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 4. 고백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은 파라오였습니다. 개역성경에서 그는 바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는 여러 차례 “내가 죄를 지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10장 16절 등을 보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노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180도 유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못 미친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의 회개 풍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회개는 대개 부흥회식 회개입니다. 부흥회에 가면 부흥 강사가 하라는 대로 대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50세까지 살았으면 50세, 49세, 48세, 47세 해서 뒤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한 살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고백하는 것을 대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일 회개가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자기가 지은 커다란 죄악들이 생각나서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못 오해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악을 낱알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회개의 사슬에 묶이면 사람이 힘들어 죽고 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나는 죄악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밤새 울고불고 하면서 나무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일로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일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다음 부흥회 때에 동일한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부흥회까지 기다렸다가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혹은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 5. 믿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믿기만 하면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원인이 회개이므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바뀌면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성경적이라고 하는 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이런 주장을 펴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누가 믿는다고만 하면 회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 누가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이미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날 믿겠다고 손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구원받은 것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도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지 빌리비즘’(Easy believ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므로 이 말이 구원을 어렵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선교사 같은 이들은 이것을 ‘이지 프레이어리즘’(Easy prayerism)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한 회개 없이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거나 영접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손들기 바랍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데에는 많은 경우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회심자들이 양산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 6. 마음을 바꾸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결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만 바꾸면 회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 180도 돌이키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소드 오브 더 로드’(주의 검, The Sword of the Lord)라는 이름의 침례교 보수 잡지/신문이 있습니다. 또 이 잡지에서는 연중행사로 많은 목사들을 초대하여 큰 대회를 엽니다. 거기의 주 편집자 중에 한 분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은 마음이 바뀌면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분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바뀐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 7. 회개와 믿음은 동일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회개와 믿음은 동일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델러스, 트리니티, 탈봇 신학교 등과 같은 신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장입니다. 저는 2010년 겨울에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 세미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미국에서 3주 정도를 지내면서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책들과 문헌들을 보면서 세미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아마존에서 책을 사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책은 델러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 교수들이 적어 놓은 1,500쪽 분량의 조직 신학 책이었습니다.<sup>1)</sup>

델러스 신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시키는 신학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신학 프로그램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은 제대로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일반 대학으로는 예일, 하버드 등이 유명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델러스 신학교가 예일, 하버드 대학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러스 신학교 교수들이 구원론을 포함해 여러 가지 교리를 자세히 적어 놓은 두꺼운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는 회개에 대해서 델러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심도 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데 회개는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워 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치면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델러스 신학교 같은 신복음주의 신학교는 거의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델러스 신학교를 세운 분은 쉐퍼(Lewis S. Chafer)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믿는 것이 곧 회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신학적 사상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눅24:46-48).

1) 「Understanding Christian Theology」, C. Swindoll, R. Zuck 편집자, Zondervan



분명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모든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으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도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델러스 신학교처럼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미국의 신복음주의 신학교를 다닌 아들이 아버지 교회를 인수받으면서 회개 문제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적으로 배워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몇십 년을 가르쳐 왔는데 아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니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교회를 쪼개서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와 믿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의 말씀에도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100%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런 의미의 회개는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 5. 성경적 회개의 사례

이제부터는 성경적으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6-48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시므로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그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사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해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서 보듯이 회개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졌습니다. 내가 죄악을 졌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이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서 행한 첫째 설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악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7-8절에 가서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향하던 것, 죄를 향하던 것, 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행동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바로 이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는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친구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해서 그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회개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관해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성경적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지내고 조상신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것을 버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표로 나타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이루어지면 변화가 안 생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마귀들린 사람을 내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졌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습니다. 그러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 행위들을 알리고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0,000개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들에게는 마술을 행하는데 쓰는 주문 등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니깐 그들은 공개적으로 와서 마술을 행할 때 쓰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회개가 나타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이 행동으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뒤에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적 회개를 하면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서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회개란 죄인이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나아가 “제가 항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4학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성화야, 회개란 뭔지 이해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180도 트는 것이 회개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아이에게 “사람이 왜 죽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179도가 아니라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강도가 칼을 버리는 것이 회개이고 도둑이 훔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면 언제나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 6. 회개와 믿음만 언급된 사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회개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유명한 구절에 어디 회개가 나오니까?”

또 그들이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감옥이 열리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자결하려다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이 유명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구원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절들에는 회개가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구절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풀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다른 성경과 분리해서 풀면 이단 해석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했고 그분의 제자들이 회개를 선포했으며 특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회개를 선포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 구절들에는 회개는 안 나오고 믿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불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감옥 문이 흔들리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과정 중에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즉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깨닫고 이미 그분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회개한 사람더러 회개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나타나고 참된 믿음이 나타난 곳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된 회개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참된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들에게 가서는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네게 줄 물이 있는데 그것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물을 얻으면 물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여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굳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앞뒤 문맥상 이 여인이 회개하도록 예수님이 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그가 회개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산헤드린의 고위 공직자 - 지금의 국회 의원이 - 가 한낱 목수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회개와 믿음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등은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만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까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적인 회개를 하면 당연히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안 나오니까. 믿음이 안 나오니까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통해 우리는 회개만 나올 때 그 안에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믿으라는 이야기만 나올 때 이미 그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7. 회개는 죄를 다룬다

회개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가짜 신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팔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그는 네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는 부자가 와서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도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첩을 여러 명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루는 선교사에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에 클라우드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첩 문제를 해결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첩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르게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는 “그 문제들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던 일을 100% 당장 한 번에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사악한 죄는 아닙니다. 진짜 사악한 죄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살인하려고 하는 죄, 미워하는 죄, 간음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죄 중에 아주 가벼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면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못 끊어도 좋습니다.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제 몸을 파괴시키는 것들이므로 이것들을 먹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제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저는 그저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경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최소한 자신의 부도덕함이나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죄들은 끊어야겠다는 의지적인 요소가 회개 속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죄악들이 날이 가면서 점점 더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만 하면 됩니다.”라고 누가 말하거든 그 말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합니다.

이 회개는 결코 100% 모든 죄를 다 잘라 버리고 그것을 몽땅 다 하나님께 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죄악, 자기 마음을 누르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어떻게든 돌이키도록 하테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끊으려는 의지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 8. 회개에 대한 오해

회개의 횟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다. 한 번 회개한 뒤에 또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안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고 믿어 새 생명을 얻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사도행전 19장 18-20절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던 마술을 하던 책들을 가져다 불살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은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믿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믿은 이후에 회개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1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고후7:9-10).

이들이 회개를 하자 그 증표가 11절에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고후7:11).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즉 회개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것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 즉 구원받은 사람들 - 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회개가 한 번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1절에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한 여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회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장 19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죄를 짓거나 열심을 못 내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돌이켜서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회개이며 이 경우에도 영어로는 ‘리펜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회개하려면 눈물 콧물을 흘려야만 될까요? 흘려도 되고 안 흘려도 됩니다. 눈물 콧물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됩니다. “나는 회개를 했는데 왜 눈물 콧물이 하나도 안 나지?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안 뽑아도 됩니다. 다만,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이 안 나도 회개한 것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쳐서 녹여 주시면 회개가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이 사람에게 거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떼려 해도 떨어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 9. 회개 요약

이제 회개를 요약합니다. 회개는 성령님에 의해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 부활 이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짜 신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반드시 한 차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또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두 개가 확실해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개가 확실해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제4장

# 믿음

믿음은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명사로는 'Faith'이지만 동사로는 'Believe'입니다. 우리말에서는 'Faith'나 'Believe'가 '믿음', '믿는다'로 표현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누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빌리브'(Believe)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페이쓰'(Faith)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에 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페이쓰'(Faith)가 총 247회 나오는데 이 중 2회만 구약 성경에 나오고(신32:20; 합2:4) 나머지 245회는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245회 중에서도 216회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페이쓰'(Faith)가 신약 교회 성도들을 위한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믿음은 별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거의 다 믿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누구나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라고 믿기에 누구나 학교에 가면 의자에 앉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믿으면 아무도 앉지 않을 것입니다.

빌딩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고 30층에도 올라갑니다. 이것을 탈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탑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라는 믿음으로 타지 않습니까? 제 집은 24층인데 2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차가 나타나는 경우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차가 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닙니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장 앞에 있는 쇼핑센터의 펫스토어에 가끔

가서 개를 쓰다듬어 줍니다. 제 아내가 개를 사면 안 된다고 하니깐 가서 쓰다듬어 주기만 하고 읍니다. 개와 고양이는 굉장히 예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쓰다듬어 주는 개가 저를 물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믿고 쓰다듬어 줍니다. 결코 강아지가 저를 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특히 크리스천 믿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학교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연못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얼음이 다 녹습니다. 그런데 “3월에도 거기 가면 비록 얼음은 얇지만 그래도 충분히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거야.”라고 제가 제 믿음을 엄청 크게 하고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타려 하면 아무리 제 믿음이 커도 스케이트를 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 믿음이 커도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편에서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기독교의 믿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학습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는 방법에는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사람의 ‘오감’(五感)을 이용해서 어떤 물리적인 실험을 하거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온도를 재면 딱딱 온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둘째는 이성적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과학적 방법과 이성적 방법을 잘 사용하면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 두 가지로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五感)으로는 그분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요4:24). 오감은 세상을 접하는 데 씁니다. 오감의 기관인 귀, 눈 등은 세상과 접하는 기관입니다. 세상과 접하는 이런 기관들로는 또는 이런 기관들이 느끼는 감각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적 방법은 혼의 작용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혼적 요소 혹은 정신적 요소로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본성의 오감 외에 믿음이라는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저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롬14:23).

기독교의 믿음은 언제나 보지 않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 방법이나 혼적(정신적)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나 아내와 이야기할 때 하도 답답하면 “제발 좀 나를 믿어라.”고 말합니다. “너 내 말 그렇게 못 믿겠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에 주어진 모든 자연 계시와 사람의 양심의 증거에 나타난 계시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올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베팅(betting)을 하라고 하십니다.

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걸으면서(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결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우격다짐 방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제시해 주는 것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일이 생겨야 믿음이 생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창조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양심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신비, 천국과 지옥, 재림과 휴거 등에 대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야만 남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충만하게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진리들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납득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그렇지.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죄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하셨구나.”라는 사실이 읽는 사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이 이에 동의하고 설득되며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목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학교에 가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부처 같은 사대 성인이 있었다고 배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존재했음을 믿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사대 성인이 역사 속의 인물이므로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나 예수님을 역사 속 인물로 인정하는 믿음은 아무 작용도 일으키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쫓으니까 마귀들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왜 우리를 내쫓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마귀들이 먼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약2:19). 그런데 살아 있는 믿음, 즉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듣고는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설득을 당해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에서 열매로 표출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행동을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 3. 믿음의 정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에서 실체는 기초 혹은 알맹이를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고 거기에 맞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에 모든 것을 고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하늘나라나 하늘나라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를 향해 질주하며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려 하면 무서운 마음이 들어 벌벌 떨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이럴 수 있나.”라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 믿음에 따른 결과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며 삽니다. 그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원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의 저 도시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또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의 믿음의 행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로 표출돼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 4. 그리스도인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등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시대 의인들이 믿음으로 산 행적이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신구약 시대를 통해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제 양심이 저를 찌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믿는 사람이 정말로 왜 저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못 되니까 자꾸 우리의 혈기로 나쁘게 대응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믿음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사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교회에 있으면서 갖가지 수행과 훈련을 했지만 도무지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로마에 순례를 다녀오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대성당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sup>1)</sup> 옛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만든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이 계단을 로마로 옮겨 놨다고 천주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로마에 갔다가 빌라도 계단을 보려고 그 성당에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끌고 가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터 당시의 1500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이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연옥에서 죄가 용서된다는 믿음을 갖고 부지런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중간에는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눈물(혹은 피)이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 다른 계단보다 연옥에서 더 많은 죄가 없어진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순례하면서 카톨릭 신자들은 꼭 여기를 기어 올라갑니다.

루터 역시 전통을 따라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의 유적들을 보고 참배를 해도 평안이 생기지 않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고행이나 선행 같은 것으로는 인간 내부의 죄를 없앨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뇌하며 여러 가지 고행을 하던 마르틴 루터는 마침내 로마서 1장 16-17절 말씀을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1) 스칼라 산타 교회, The church of Scala Santa, 네이버에서 '로마 빌라도 계단'이라고 치면 기사가 나옴.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을 보십시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개역성경은 또 여기서 그리스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살면서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하며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맨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그 사이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결코 육신의 오감이나 어떤 혼적인 요소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옵니다. 들어야 설득을 당합니다. 들어야 인정이 됩니다. 들어야 동의가 됩니다. 들어야 인생을 ‘올인’하며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신문, 잡지, 소설, 재미있는 이야기 등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신문, 인터넷 이야기를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50분이면 50분, 40분이면 40분 설교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목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4절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에녹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노아이며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을까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든 말은 구원받는다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그런 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 즉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 사람들의 믿음과 신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 둘은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서신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거기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바르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 땅에 살 때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산 사람도 있고 잘 못산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물이 적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여기서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므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우리’는 신약 시대 성도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고 우리에게 이런 증인들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권면합니다.

그다음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창시한 분’으로 나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 즉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엄청난 형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십자가를 견딘 이후에 내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이 심히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치를 이기고 앞으로 밀치고 나아가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은 이 일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을 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참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맨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실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놓인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영광의 믿음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마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교리나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원천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believe) 동시에 그분의 믿음(faith), 즉 그분이 창시하고 완성하신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 5. 믿음과 은혜

이제부터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동의해야 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영원토록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며 이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모든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 6. 믿음과 삶

믿음과 삶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위에서 로마서를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어 사는 방법은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즉 구원받을 때도 믿음, 성화가 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믿음, 죽을 때도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왕관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도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해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온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거니와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고후8:1-3)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아이러니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니깐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 7. 믿음이 아닌 것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자기 확신 혹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세 번 외친 뒤 “백만 원 갖다 바쳤으니 하나님이 천만 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격다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순절/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오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집회에 가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고 일천번제를 작성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결국 일천 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은 맹신이고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하는 일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부디 잘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 이것을 기억하며 히브리서 11장을 객관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이미 주기적으로 나오는 멘스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 즉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약속으로는 아들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히11:11). 이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믿음으로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 8. 믿음 요약

믿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랑처럼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로서만 존재합니다. 대상이 있어야만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믿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 주는데 어떤 친구가 우리를 믿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네가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며 이 믿음은 언제나 ‘인격 대 인격’의 신뢰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교리나 신조나 구원 체계를 깨닫는 데서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전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신약 시대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만을 믿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인격체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내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 제5장

# 은혜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은혜’(Grace)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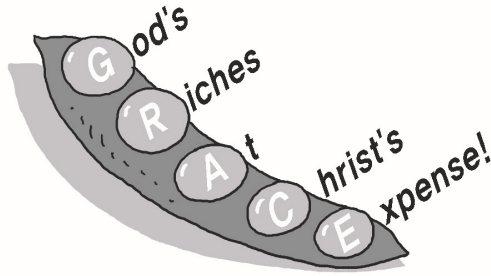
### 1. 은혜의 정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아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 아이들은 특히 미국에 가면 ‘그레이스’(Grace)라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레이스’ 하고 부르면 많은 아이들이 쳐다봅니다. ‘그레이스’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교회 갔다 오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어는 성경에 170번 나왔습니다. 그레이스만 170번 나오고 ‘그레이스풀’(graceful), ‘그레이셔스’(gracious) 등을 다 찾으면 200번 이상 나올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할 때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 장면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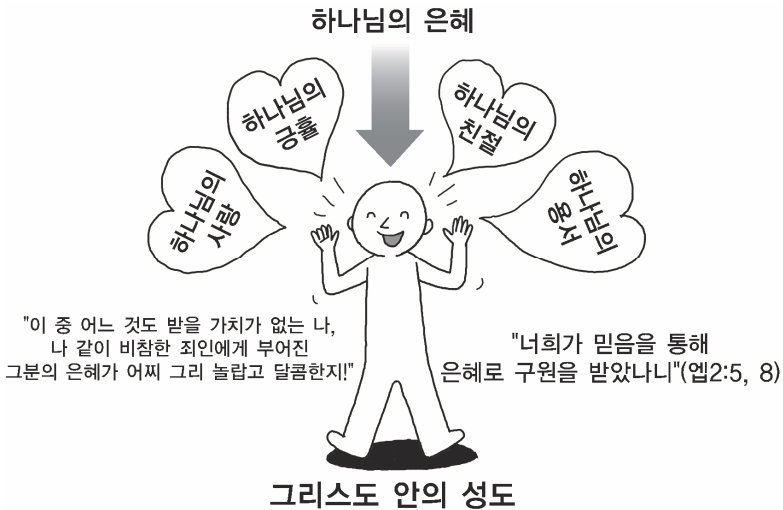
한마디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2. 은혜와 행위 시스템: 기독교와 세상 종교

앞에서 저는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믿음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세상 종교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선행을 자꾸 쌓으면 나중에 천당이든 극락이든 간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선행으로 악행을 보상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나중에 죽어서 심판자 앞에 가면 거기에 선행과 악행을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때에 심판자가 저울의 양쪽 끝에 선행과 악행을 올려놓습니다. 이때에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서 저울이 선행 쪽으로 기울면 이 사람은 극락이나 천당에 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이 다 이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한 믿음으로 되는가, 행위로 되는가의 문제에서 100% 믿음으로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행위는 사람의 구원에 일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은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즉 성경을 읽고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문맥을 잘 보고 문단의 대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2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행위입니까, 아님니까? 지금 저는 교리가 아니라 국어를 묻고 있습니다.

2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그다음 절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믿은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믿는 것도 사람이 믿는 것이므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합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4, 5절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님이 월말에 2백만 원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는 그 월급을 보수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주는 은혜로 생각할까요? 물론 보수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 보수로 여길까요?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고 무언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거저 은혜로 주어집니다. 얼굴이 잘나고, 돈이 많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십일조를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고, 30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면서 구원과 영생을 주면 그것은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 보수입니다. 즉 빛 준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빠가 만원을 주면서 “아들아, 정말 너 잘 키워서 고맙다. 용돈하렴.” 하면 이것은 빚일까요, 아빠가 거저 주는 선물일까요? 선물입니다.

바로 이런 선물이 은혜입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빠가 “너 여태까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하고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누가 그 대가나 보수로 무엇을 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누가 보답으로 무엇을 내게 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등과 같은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든지, 100% 행위로 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9%는 은혜로 되고 1%는 행위로 되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따르면 행위면 100% 행위이고 은혜면 100% 은혜입니다. 50% 은혜, 50% 행위로 되거나 99% 행위, 1% 은혜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100% 은혜로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4-5).

비록 일을 하지 않아도 좋은 행위가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 죄에 빠져 사는 사람,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인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불교도들보다 선행을 못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 시스템은 선행을 많이 해서 나중에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아야 구원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의는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미와 사람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개미의 일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미들이 사는 동네에 사람이 지은 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들이 하는 일로는 그런 다리를 치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엄청난 규모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 죄를 치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앞서가듯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사람이 쌓아 놓은 선행과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든 교황이든 신부든 목사든 대통령이든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천 원을 주면서 빵을 사 먹으라고 하면 대개 순진하게 “고맙습니다.” 하고는 은혜로 그것을 받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돈을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왜 돈을 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등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른이 되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에 이미 머리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거저 준다고 하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느냐고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마18:3).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주면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성장하면 “이것을 내가 왜 거저 받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는 거저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저 되는 것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젊을 때 받는 것이 좋고 또 쉽습니다.

### 3. 은혜를 거저 얻는 이유

그러면 왜 구원을 거저 받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기를 보기 바랍니다. 공기가 없이 5분이나 10분 지나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내고 공기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너무 귀중한 것’은 100% 거저 주어집니다. 사람이 돈 내고 사 먹을 수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햇빛이 한 시간만 비치지 않으면 온 지구가 뽕뽕 얼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이 햇빛도 거저 받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출생에 일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같이 너무 귀중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칠팔십 년을 삽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거저 해 주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 율법과 은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요1:17). 율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관한 법이다. 안식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모세와의 언약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출20:12; 19-21; 겔 20:12, 19-21).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그분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롬3:20; 갈2:16).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롬3:20). 유대인들의 일곱 명절이나 번제 헌물과 같은 의식법의 모든 예식과 의식은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롬10:4; 갈2:19).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분의 긍휼이다(엡2:8-9). 은혜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딤후2:11) 은혜를 입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다(엡2:8).

**율법:**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율법	은혜
증(히3:5) 네 신을 벗어라(출3:3-5)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레18:5). 거룩함을 요구함 양이 목자를 위해 죽음 여러 번 드리는 수많은 짐승 희생물	아들(히3:6) 네 신을 신어라(눅15:22) 살라. 그리고 행하라(엡2:8-10). 거룩함을 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음 한 번 드리는 영원한 희생물

즉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귀중한 것을 돈이나 명예나 현금이나 십일조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귀중한 일에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십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행위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면 풀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죄를 짓듯이 청소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또 지으면 제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에게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물으니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니?”

잘 깨닫기 바랍니다. 만일에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다가 다시 회수된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었던 것을 다시 빼앗아 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상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를 이용하여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이므로 이런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 종교 시스템의 구원이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허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아빠가 “너 너무 착하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는 새우깡을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는 싫습니다.” 하고 안



받으면 그 돈이 은혜의 선물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누구든지 아들을 믿으면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겠다고 공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선물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면서 거저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놔어도 사람이 “나는 싫습니다.” 하고 자유 의지를 써서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 의지를 꺾고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가져다주시는 일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를 정해 놓고는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너는 구원받는다.” 고 하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인지하고 또 형편없이 파산된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확인하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 즉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제가 졌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때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는 일이 없으면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 4. 은혜와 행위

이제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안 해도 됩니까? 선한 행위가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왜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영의 인도에 따라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에 따라 우리의 자유 의지를 굽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공훈을 베풀고 또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야기하는데 선한 행위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려고 빌딩을 구하러 다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한다고 하면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고 안 빌려 줍니다. 매일 새벽부터 록 음악을 하면서 팡팡대고 시끄러워서 교회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층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주일에 교회 주변에 주차 대란이 생겨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날은 교회 주차장을 열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구제를 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교회들이 현금의 얼마를 구제에 씁니까? 교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밀가루 한 포대라도 나누어 주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과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엡2:8-10).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호의를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기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서 나는 교회에 안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아주 미워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또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에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주변의 모든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또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입니다.



## 제6장

# 구원 패키지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서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옮겼더니 그 교회는 구원받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영접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칭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교회마다 다를까요?

### 1. 구원 패키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짧게 ‘영생’(Eternal life)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영생, 길게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터널 라이프’(Eternal life)가 있고 ‘에버래스팅 라이프’(Everlasting life)가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는 이 세상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칠팔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생의 삶은 잠정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잠정적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에버래스팅 라이프’, 즉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가도 가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에버래스팅’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기간을 표현할 때 성경은 ‘에버래스팅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4-16).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의 구원을 패키지로 주십니다. 영생의 구원 패키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사망에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당연히 구원이 따라옵니다.

이제 ‘칭의’(Justification)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딸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법정 선언을 일생에 한 차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런 칭의(稱義)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구원 따로 칭의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는 자동으로 칭의가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성화’(Sanctification)가 따라옵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 돼지가 진창에서 뒹굴니까? 돼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닦아 놔도 그다음 날 보면 또 진창에서 뒹굽니다. 또 닦아 줍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뒹굽니다. 돼지의 ‘생명’(Life)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삶’(Life)이 나옵니다. 돼지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Life’(생명)에서 ‘Life’(삶)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돼지의 행위가 나타나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므로 예수님의 삶의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뀌지 않으려 해도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도 하나님이 영생을 얻을 때 주는 패키지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다.” 혹은 “안 하고 싶다.”에 따라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이후로는 그분께서 “너 그것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하면서 자꾸 찌르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나쁜 일을 해도 아무 의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뒤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 “그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시면 두려워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자 삼으심’(Adoption)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양자입니다. 아시겠죠? 양자도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상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양자가 되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는 것도 구원 패키지 선물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으니까 양자도 되고 의롭다는 판결도 받고 성화도 됩니다.

또한 ‘구속받는 일’(Redemption)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빼냈습니다.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를 다 잃으면 얼마 줄 테니까 도로 물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아이가 돈을 받고 물러 줍니다. 이렇게 무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가면 ‘영화롭게 되는 일’(Glorification)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칠팔십 년 사는 동안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몸이 쪼그라들면서 인생이 초라하게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또 성화를 이루려면 구원받을 때의 성령님의 침례 외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 다 패키지로 통째로 거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영생 외에도 이런 모든 것을 한 패키지 안에, 한 박스 안에 몽땅 담아서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면 특별히 성화를 더 강조하고, 어느 교회에 가면 특별히 칭의를 더 강조하고, 어느 교회에 가면 특별히 성령 충만을 더 강조합니다. 이리다 보니 교회를 옮기면 교회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므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 패키지라고 말합니다.

## 2. 구원의 복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권능이란 말은 영어로 ‘파워’(Power)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파워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복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 분이라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흘 동안 땅에 묻히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거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주어진다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등의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읽습니까? 모든 성경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롬15:4). 그래서 이것들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열왕기도 읽고 역대기도 읽고 사무엘기도 읽고 잠언도 읽으면서 그것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일차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읽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복음이 제시된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열왕기나 잠언, 야가서 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의 성화에 대한 성경기록은 진리지만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이 모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선물을 패키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려 하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의 수많은 부속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기 전에는 안 가겠다.”라고 걱정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미국에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이것만 타면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구조를 다 몰라도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응애!” 하고 엄마 배 속에서 나오면 그다음부터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 배 속에서 다 큰 다음에 나오려면 배가 터져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엄마 배 속에서 다 큰 다음에 나오려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 3. 구원의 세 단계

이제부터 구원의 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소리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우리가 언급하는 구원은 항상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이란 예수님을 내 주님이요 구원자로 신뢰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죄의 형벌’(Punishment of sin)로부터 영원히 단번에 구출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죄악의 몸을 가지고 살므로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적 구원’(Positional salvation) 혹은 ‘신분상의 구원’이라 부릅니다.

신분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원받으라고 할 때의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위치적으로 신분 면에서 의인이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삶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도 종종 넘어집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맡김으



로 ‘죄의 권능’(Power of sin)으로부터 구출받는 일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은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래에는 아예 ‘죄의 존재’(Presence of sin)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아예 죄가 없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혹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요소를 세 단계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받는 순간 영원토록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는 동안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미래에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 영존하는 몸을 입게 되면 절대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Glorification)라고 말합니다.

#### 4. 구원의 안전 보장

이제부터는 구원의 안전 보장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아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 사람을 그냥 둘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냥 둘까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원숭이 하나만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존재, 즉 새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느냐, 증폭되지 않느냐를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의 삶이 시작되면 구원받은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매일 우리 속에서 싸웁니다. 죄를 보면 옛날의 원숭이는 “그래 많이 많이 해라. 얼마나 좋으니!” 하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사람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자꾸 지을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죄로 인한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옛날엔 큰 죄를 지어야만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이 자꾸 찌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속에서 “너 왜 그런 걸 했니?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옛사람인 이 원송이를 자꾸 발로 밟아서 눌러야 합니다. 이 원송이가 자꾸 튀어나오게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옛사람이 스프링처럼 자꾸 튀어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자꾸 밟아서 눌러야 합니다. 원송이를 밟아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새사람에게 자꾸 먹을 것을 줘서 계속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의 ‘관계’(Relationship)를 맺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땅에서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는 본질상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로 나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난 다음에는 관계가 짝 바뀝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섭게 느껴지고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일이 반갑지 않고 만남이 조금 서먹서먹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제’(Fellowship)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 줍니다. 부모자식 간에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했으므로 교제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흉악범이 돼서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여전히 그 엄마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그런데 교제가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계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새사람이 형성이 돼서 성령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옛사람을 좇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 양심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점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엄마 아빠에게 나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준 뒤에 “다음부터 잘 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다시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를 만나도 무서워서 별별 떨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야단맞은 것을 평생 동안 머릿속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았어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아이의 죄를 기억하고 늘 아이를 겁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벌을 주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그래서 믿는 사람도 ‘리펜트’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요즘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간증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 죄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증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악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간증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눅 들면서 “나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렇게 죄를 꼭 지어야만 구원받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간증은 거의 다 “과거에는 제가 사악한 죄를 지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 집회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간증은 “제가 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크고 작은 못들을 나무에 박는 것과 같습니다. 못을 빼낼 수 있지만 못 자국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자국이 없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악이 다 용서됐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은혜의 정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일이 평생 동안 잊히지 않는 일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특별한 허물이 없이 커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딤후 3:15).

이런 사람의 경우 아까 그 흉악한 범죄자가 구원받을 때 느끼는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낫습니까?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큰 감격을 느끼려고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롬6:1-2)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려고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간증 집회의 폐해가 너무 큼니다. 대개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자랑하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간증 스토리는 병에서 나왔거나, 사업하다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었거나, 방언, 신유, 예언, 입신 등의 오순절 은사 운동의 신비주의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수적인 회개와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실로 연예인이 변화가 되었으면 나이트클럽에 노래하러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흥 돋우는 일에도 우미 노릇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허접쓰레기 연예인/코미디언 간증자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 교회를 좀먹는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먼저 그런 허깨비들을 초청하는 목사나 교회가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고 연예인 불러다 놓고 구두 티켓, 술, 냄비 주면서 사람들 데려다 앉히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런 유치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방식의 전도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 5. 구원의 확신

어떤 형제님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전 정말 죽겠습니다. 이전의 죄악이 자꾸자꾸 생각이 나고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게 구원받은 징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조그만 죄를 범해도 양심이 민감해져서 막 찌르므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징표고 정말로 성화를 이루는 사람의 징표입니다.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인 줄 아는데 자기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고지가 저기 있는데, 표준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스피치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설교의 황제라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통풍이 와서 너무 아프니까 낙담하기도 하고 너무 가리았아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아 이것이 좋은 징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화되는 이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되도록 내어 맡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며 내일 다르고 모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구원받은 것 같고 다음 날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죄를 덜 지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지으면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실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배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조수입니다. 반장이 조수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제발 그런 교만한 말은 하지 말게.” 그러자 조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반장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합니다.” “그런 교만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러자 조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반장님 여기 배수구 보이시죠? 물 빼는 배수구요. 이 배수구의 직경이 얼마 줄 아십니까?” “아 물론 그것의 직경은 48센티미터지.” “반장님, 48센티미터인 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배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설명서에 48센티미터라고 적혀 있잖아.” “반장님, 저도 지금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고 제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성경책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이 성경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성경책에서만 나옵니다. 이 성경책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책이 6일 만에 우주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이 책을 기준으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의 내적 확신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거나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오직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믿는 데서 생깁니다.

## 6.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어로 ‘본 어겐’(Born Again)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의 ‘Born은’ 즉 ‘B-O-R-N’ 즉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어겐’이 붙으니 ‘본 어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 1. 말씀을 사모한다

어머니 배 속에서 누가 나오면 장성한 상태로 나오니까? 아니면 아기 상태로 나오니까? 엄마 배 속에서는 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아기와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거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기를 키워 보면 알겠지만 배고프면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무척 울어댁니다. 보통 울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우는 것입니까? 젖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 특징은 젖을 달라고 보챈다는 것입니다. 젖을 줘야 자라니까 젖을 달라고 울어댁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정말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헌금하거나 교회 일 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도 섞어 놓은 것 말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 여러 가지 섞은 것을 줍니까? 아니지요. 부모가 되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것이 더 비싸도 좀 더 순전하다는 것을 찾아서 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말씀의 순전한 젖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음악과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신문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참 귀찮은 존재입니다.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사람에게 어른의 일을 부과하거나 어른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야 아사(餓死)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2. 모이기에 힘쓰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아기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자 젖 빨고, 우유 통 삶고 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먹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둘째로 나타나는 징표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오직 말씀의 순전한 젖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문 읽고 인터넷 기사 읽고 제이씨 페니, 콜게이트, 록펠러, 링컨, 어거스틴, 프란시스, 마더 테레사, 김수환 추기경 등의 단 이야기로 강단을 채우면 아기의 건강이 부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젖을 제대로 주고 좋은 이유식을 주면 아이가 부쩍부쩍 자랍니다. 눈에 띄게 자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비관적이면서 또 낙관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과 자기를 보면 너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종류끼리 모이니까 낙관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세상에서 노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싫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젠 그 일이 싫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깃털이 바뀌었고 종류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담패설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어색하고 싫습니다.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이는 것처럼 같은 영이 있고 같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모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무조건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교회에 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교회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당히 모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선한 행위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나타나야 합니다. 다만 교회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영을 새롭게 충전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젖을 먹고 자라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 365일 교회만 와서 살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목사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고 좋아하는 목사는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목사가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설교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교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람 혹은 목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3.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죄를 짓거나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게 됩니다.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자꾸 죄 짐이 있다고 하는데 죄 짐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습니까? 50킬로그램입니까, 100킬로그램입니까? 도대체 몇 킬로그램입니까, 죄 짐이? 저는 죄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거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위에 베틀 한 가마니를 가져다 놓으면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물론 못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죄 짐의 무게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짐이 천근만근이 되어도 못 느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 짐을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는 동안에 느끼는 죄의 무게가 0킬로그램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해서 “빛을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죄를 짓거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 생각이 들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4.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에 이로 인한 영적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의 아들딸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나가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자유를 주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지금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를 데려다가 봉사하라고 다그치고 많이 헌금하라고 하고, 월화수목금토 전도 대회 나오라고 하고 가서 10명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숨 좀 쉴 수 있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말씀은 먹이면 다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죄 짐 지고 사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러니 좀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먼저 자유를 만끽하고 말씀으로 많이 배운 다음에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전도 훈련, 제자 훈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한테 어른의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구원받을 때는 거저 된다고 하고는 구원받자마자 완전히 율법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교회에 몇 번씩은 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 교회에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교회에 데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뇌가 없다는 말이 이래서 생깁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아기에 맞는 순전한 영양분의 말씀만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크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살피 주고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과 자유를 만끽하게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일을 하도록 만들면 지쳐서 나가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에 합당한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 생명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5. 삶의 태도가 바뀐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와 목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돈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목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목사만 성직이고 밖에 나가서 타이핑치거나 택배 돌리는 일은 성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업은 귀한 일이고 성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런 일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나 태도 특히 재물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가정생활 등의 모든 것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든지, 아내가 남편을 보든지, 자식들이 부모를 보든지, 부모가 자식들을 보든지, 직장에서 상사가 보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느냐, 좀 빨리 나타나느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많이 순전한 젖을 빨아 먹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요구에 따라 옛사람을 얼마나 눌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새사람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억제하는 정도에 따라 변화의 스피드는 다를 것입니다.

## 6.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애쓰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선한 행위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며 좋은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욕구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판단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가이드를 하므로 교회에 가서는 “이거 들어 보니까 신문 이야기만 하는군.” 하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못 다니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실로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회들이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가르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났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홍수가 났습니다.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을 공급하는 교회는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먹을 물이 더 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구원받으면 각자의 성장을 일단 각자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책도 있고 지금 찾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지 구원받으면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 말씀으로 먹이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편안한 데 가서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결국 천국에서 다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각자가 영혼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약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체계로 운영되는 교회로 가면 삶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회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제사장, 즉 ‘Priest’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런 시스템은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는 시스템입니다. 개신 교회에서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목사가 제사장 행세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십일조와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런 곳을 자기 교회로 삼으면 영혼이 곧 피곤해집니다. 목사가 축도권을 가졌다고 하고 복을 주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 목사가 총회장이나 감독을 하거나 한 교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돈이 지배하는 교회이고 권력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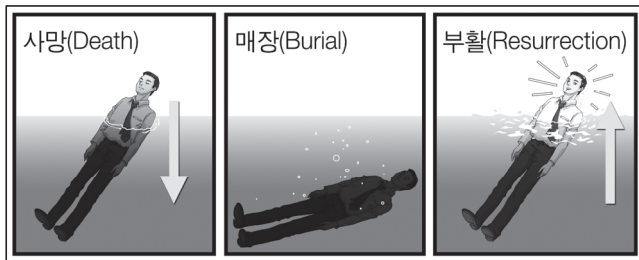
또한 특정 인물이 병 고친다고 하는 교회, 귀신 쫓는다고 하는 교회, 입시 철이 되면 특별 새벽(특새) 기도를 한다고 하는 교회, 헌금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교회는 피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과 거의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목사 배만 불리는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끝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아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 7. 성경적인 침례를 받는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한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침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 탕에 백 번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침례란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묻혔다가 새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의 그림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예수님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사람으로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것이 침례의 목적입니다.<sup>1)</sup>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이런 말씀에서 ‘침례’를 개역성경처럼 ‘세례’로 고쳐 놓으면 ‘침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가 어떻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살아나는 것’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

1) 침례에 대해서는 사랑침례교회(cbck.org)의 관련 자료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제7장

# 구원 관련 이슈

이번 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와 의문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 1. 잘못된 구원 방법

먼저 잘못된 구원/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영접 기도 구원과 ‘깨달음의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배구를 할 때 ‘서브’(Serve)를 하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서브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공을 ‘리시브’(Receive) 합니다. ‘리시브’는 곧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서브’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리시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리시브’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개역성경으로 번역할 때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영하며 접대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리시브’란 단어를 쉽게 ‘받아들이다’로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므로 “제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인격체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기록에 내가 동의합니다.”라고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구원의 방법이 이렇군요.” 하고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므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려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나 사영리 혹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이해하고 회개도 이해하고 믿음도 이해하고 은혜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서 깨달은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어느 특정 교회에서 주장하는 ‘깨달음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내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구원이라야 합니다. 즉 그분이 내게로 ‘올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깨달음의 구원’을 가르치므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맞는구나.” 하고 동의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배구에서 한쪽에서 서브하면 다른 쪽에서 ‘리시브’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리시브’를 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리시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영리 등으로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0분 동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구원받습니다.” 하고는 영접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대로 따라하면 “형제님, 형제님은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셨으니까 구원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따라 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안 해도 복음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순서를 밟았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기도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저는 찬송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나 찬송하다가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설복이 되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춤추다가 찬송하다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은 성경에 없는 다른 구원입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라고 작심하고 예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 2. 강대상 앞으로 초청하는 것

저는 미국에서 오래 지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설교가 끝난 뒤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은 손들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는 기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날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꼭 착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날 내가 강대상 앞으로 나갔으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7-8년 전에 처음 교회를 할 때는 저도 미국 목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설교가 끝난 뒤에 “구원받기 원하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구원 영접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손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행복시키면 손을 안 들어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손을 들어 확인하고 오늘 다섯 명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도하지 않기

위해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확인하는 분들도 대부분 좋은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한국 교회에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 목사가 거의 체크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도 구원의 확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늘 같은 식으로 피상적으로 반복되면 거기에 물들어 타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혹은 ‘강대상 앞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꼭 구원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아시면 다 끝납니다.

### 3. ‘로드십 구원’(주재권 구원)

이제부터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에서는 ‘주재권 구원’ 혹은 ‘주 되십 구원’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구원자는 아실 테니 이제부터 주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말 ‘로드’(Lord)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드십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단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배 속에서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된 뒤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알아서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로드십 구원’의 주창자들은 모든 면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새 인터넷에서는 폴 워셔(Paul Washer)라는 목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드십 구원’입니다.<sup>1)</sup>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고는 손들고 나오라고 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한 뒤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실 대부분 거짓 구원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병이 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방언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돈을 잘 버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사자처럼 울부짖으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등과 같이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구원은 성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거짓 구원입니다. 대개 이런 데서는 자꾸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는 위에다 보고합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로드십 구원’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100%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이지 빌리비즘’(Easy believism)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극단적 믿음 체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먼저 태어난 다음에 자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자라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라지 않을까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사람들을 보고 다 ‘성도’(Saints)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고전1:1-2)

‘성도’(saint)란 구원받아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편지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간음하는 자도 있고 음행하는 자도 있고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자도 있고 방언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도 있고 부활을 오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각종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 로드십 구원(Lordship salvation)에 대해서는 부록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역사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고전3:1-3)

다시 태어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무시하고 성령님을 누르면 옛사람이 힘을 받아서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의 자리다툼은 다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헌금하고는 왜 액수를 밝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심정으로 감사하고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이 주장하므로 꼭 육신의 일을 드러내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역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드십 구원’을 가르치는 목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존 맥아더 목사입니다. 맥아더 목사는 여러 면에서 좋은 글과 설교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하고 또 ‘로드십 구원’을 강하게 가르쳐서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드십 구원’의 뿌리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삶에서 극도의 순수함을 추구하려 했고 그러다 보니 정도가 지나쳐서 보편성을 잃게 되어 결국 과격한 면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로드십 구원’은 극단적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용인되는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원과 제자의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는 구원받는 순간에 단 한번 영원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진행됩니다.

〈구원과 성화 비교〉

구 원: 태어나는 것	성 화: 자라나는 것
칭의(롬3:26)	성화(살전4:3)
은혜로만 된다(롬11:6).	행위가 동반된다(빌2:12).
믿음으로 얻는다(롬1:17).	신실함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다(고전 4:2).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요3:16)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고후5:14)
그리스도의 십자가(롬5:6)	나의 십자가(마10:38)
영원한 생명(요3:16, 18)	영원한 보상(고전9:24)
유일한 사건(요3)	일생의 과정(엡4:15)
한 가지 조건(행16:30-31)	여러 가지 조건(마18:3)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지만 성화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동조해서 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work out).

이 말씀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 즉 성화의 길은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행위로 표시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즉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 다음에 나오는 제자의 길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제자의 길은 영원한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제게 똑같은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만 킬로미터를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분과 비교해서 저는 감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받을 보상과 제가 받을 보상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산주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상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보상을 얻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제자가 되는 것은 평생토록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의 과정입니다.

## 2. 구원 관련 질문

이제는 구원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1.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가?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화가 되면 많은 경우 아주 악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자마자 구원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가자마자 “형제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라고 교인들이 대뜸 묻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써어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매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사세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과 교제가 은혜가 되었어요?”라고 묻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물으면서 시간을 두고 서로 친해지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형제님은 구원받았습니까?”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자마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다그치듯이 묻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종종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 역시 구원에 대한 일반 교회들의 무관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요즘 교회에 가서 구원에 대해 목사나 성도들과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늘 관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목사와 더불어 진지하게 구원 문제를 의논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 교회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큰 죄악입니다. 목사는 자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영혼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려 주고 관심을 갖고 적당한 때에 구원 상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느 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나는 그날 분명히 구원받았어.”라고 하면서 의심의 안개를 접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의 초청에 진심으로 손을 들고 반응하여 앞으로 나가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날짜를 아는 사람들은 대개 과거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대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자란 순진한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구원 날짜를 모르고 또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생일이 11월 16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보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 날짜를 아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날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정확한 날을 모를 수 있고 또 모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 구원자요, 주님이면 구원의 날짜를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인이 자기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목사가 설교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그의 부모나 주변의 친구나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에게서는 아무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매개 인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죽어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100%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위에서 저는 쓸데없는 교회 문화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꾸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동수 형님, 형님” 하는데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기에 “도대체 왜 자꾸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적은데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임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남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높여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면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과연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발견되는 안 좋은 문화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전통과 문화는 교회를 세워 주지 않고 오히려 넘어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규범과 예절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 2. 구원은 특정 교회에서만 받는가?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에 가면 자기들 교회나 자기들 교회와 연합하는 교회들 외의 다른 데서 구원받을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만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에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은 구원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시 구원 세미나를 듣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하는 6일간의 구원 코스를 들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것을 꼭 6일 동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파라고 알려진 교회들의 구원 문화입니다. 교회당 문화가 만든 이런 유산들은 속히 버려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또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 주면서 그의 부모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돈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유로운 영이라면 어떻게 특정 교회의 방법대로 그 교회가 정한 날수대로 그 목사에게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실까요? 세상에 그런 역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장로교 다니면서도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다가 혹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문화나 틀은 다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랜드마크 뱍티스트’(Landmark Baptist) 혹은 ‘뱍티스트 브라이드’(Baptist Bride)라 불리는 침례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침례받은 사람만 교회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자기네 교회에서 받은 침례라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고 자기들만 휴거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누가 다른 교회에서 오면 자기 교회에서 다시 침례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의 유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원받고 교회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래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일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지남철과 쇠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교회에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으며 교파마다 특별하게 강조하는 점들이 다릅니다. 물론 더 성경적인 교회도 있고 성경에서 먼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고 스페인 사람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민족성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로교가 가장 세력이 강합니다. 처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서열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처럼 유교 전통이

강하므로 할아버지도 형제, 아이도 형제, 목사도 형제, 집사도 형제라고 부르는 침례교회가 들어와 세력을 펴기에는 민족의 정서 측면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섯 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이것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을 장로님으로 부르며 존경하는 장로교 체제라야만 우리나라에서 쉽게 교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원래는 장로가 없는데 할 수 없이 장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보기 바랍니다. 어디 장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한국에서는 침례교회도 이제는 장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 민족의 정신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생기는 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00년 전에 침례교회가 들어와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마1:1).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루터나 무디나 목사나 집사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이 목사에게 다가와 “형제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민족의 특색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교파가 흥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교파들의 모든 것을 좋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면서 민족의 특성에 따라 특정 교파가 그 민족 가운데 자리를 잡게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장로교회, 미국 같은 데는 자유가 넘치니까 침례교회가 번창하게 허용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 외에는 교회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의 유물인 장로 계급 체계를 세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교는 미국에서 잘 안 됩니다.

또한 장로교, 감리교 등은 총회장, 노회장, 감독 등이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교황 제도를 조금 바꾼 것입니다. 또한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등은 모두 국가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파들은 원래부터 유럽에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파 시스템은 처음부터 아메리카 신대륙의 정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레 장로교나 감리교 혹은 루터교나 천주교를 떠나서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침례교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침례교가 사람이 만든 교파들

중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요, 민주주의 회중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와서 “우리만 교회다. 우리 교회 방식대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단 종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저는 침례교회가 성경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침례교회만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 교회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 교회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침례교회를 찾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가?

다음에 고려할 것은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나온 예정론 문제입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서 뭐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다 정해져 있는데 교회 간다고 구원받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들 구원받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의 예정론 혹은 운명론적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칼빈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 구약 시대의 신정 통치 교회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은 형태만 다를 뿐 천주교회의 교황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의 교황이 됐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신정 독재 통치를 하면서 당회 제도라는 것을 통해 시의회를 동원하여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거나 벌을 주는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정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그의 교리 체계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칼빈주의를 따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갈 사람을 정하고 지옥 갈 사람을 정하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 이미 예정된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천국 갈 것으로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예지 예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받아들일 사람을 천국으로 정하시고 그렇지 않을 사람을 지옥으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초청을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지 예정’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여 피 뿌림, 즉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까?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홍길동에게 전달될 때 그가 마음 문을 열고 “옳은 말씀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미리 보십니다. 그리고는 홍길동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십니다. 즉 그분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을 미리 보고 그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정하십니다. 이렇게 예정하는 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미리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사람의 운명을 정해 놓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믿게 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악독한 하나님이며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30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운명에 관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선택하는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신 뒤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칼빈주의의 이 극단적 예정론으로 인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전도와 선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롬10:13).

#### 4.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나 정신 지체아 같은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주교에서는 아이들이 죽으면 뜨거운 지옥에서 가장 서늘한 곳인 림보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림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은 회심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어 복음이 제시될 때 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을 때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품에 받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스스로 구원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영어에서는 '회계 보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사무엘기하 1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다시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간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 박약이나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직통으로 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무슨 대피소 같은 데 들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고린도후서 5장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빌1:22-24).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믿는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어서 즉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땅속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 5.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교도들의 구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이교도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지옥에 던져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

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롬2:11-16).

하나님은 이교도들에게 양심이 있으며 그 양심이 그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자께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교도들이 유죄임을 증언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없이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은 또한 복음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까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요1:4-9).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8-20).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의로우시고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진리를 충분히 알 만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롬1:18-19).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불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봄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능력이 있으시며 삼위일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없어도 누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하는 모든 이방 종교 역시 영원한 능력을 지닌 절대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지만 기독교를 부인하는 종교들 중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과 몰몬교도들과 현대주의자들과 같은 아주 저속한 이교도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빛을 주셨고 만일 사람이 그 빛을 따르면 그에게 좀 더 많은 빛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만일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빛을 따른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렘 29:1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정글이나 외딴 섬이나 멀리 떨어진 산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옥 형벌을 선고하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다시 읽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외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진심으로 좇았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롬1:20)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시대 사람이든, 아마존 강이나 아프리카의 미개인이든 어떤 이교도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 - 창조 세상이나 양심 - 를 보고 반응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라는 그 빛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더 큰 빛을 주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빛을 그들 모두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3:10)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롬3:22)



## 제8장

# 구원 요약

위에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하려 합니다.

### 1. 창조자 하나님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sup>1)</sup>

사람이 세상을 보고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째 초석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자가 되어 일단의 조수들을 데리고 중남미 과테말라의 정글을 터벅터벅 걷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뺨뺨한 초목을 칼로 베어 겨우겨우 길을 열어 가면서 마야 문명의 유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의 뜨거운 열기와 뱀과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진로를 방해합니다. 눈은 따끔거리고 발바닥은 타는 듯이 뜨겁고 온몸의 근육이 쭉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년도 더 된 덩굴을 헤치고 정글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마치 정글 바닥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녹색 다이아몬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처럼 열대의 덤불에 덮인 거대한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야 유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했던 지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즉시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탐사와 발굴이 진행됩니다. 이제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야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탐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과테말라 정글 상공을 날다가 바닥이

---

1) 이번 장에서 ‘창조자 하나님’ 부분은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진리」(맥스 앤더스 지음, 규장 출판사)에서 인용하였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우리는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었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은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둔덕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하여 탐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주에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 이면에 ‘지적 존재’가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실로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를 해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히3:4).

우리는 중앙아메리카 정글 한가운데에 바닥이 정사각형으로 된 둔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은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설명하지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요구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보다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이유: 지적 창조자의 존재**

우주의 질서와 목적은 그 이면에 지적인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20).

우주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주는 분명한 질서와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 부속이 난잡하게 어질러진 상태와 그 부속을 짜 맞추어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난잡하게 어질러진 시계 부속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이 정교하고도 절묘하게 조립되어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존재할 뿐 아니라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정사각형 둔덕은 마야 문명을 암시합니다. 한편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소리칩니다.

### 셋째 이유: 인간의 창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셋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롬2:15).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기를 갈망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보다 월등하고 다른 짐승보다 지적입니다. 양심을 갖고 있으며 영적인 세계를 느낍니다. 역사의 모든 문명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 넷째 이유: 성경의 계시

성경은 자연과 인간을 정확히 보여 줍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19:1).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과학과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과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의 토대가 된 것은 성경입니다. 저 우주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우주

연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하심으로 써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리의 내적인 직관적인 인식력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밤하늘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직관적인 생각이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물질적인 것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관한 성경의 언급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히11:6).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이나 컴퓨터 자료를 조사하는 실험실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의 법정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 주는 증거들, 이성적인 의심을 압도할 증거들, 방자한 인간의 마음을 설득하여 이성의 의심을 떨치도록 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널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을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신은 곧 또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근거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만한 논리적, 철학적 근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우주의 복잡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강력한 물질적 증거 역시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현대의 유능한 과학자 가운데에도 진화론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진화론이 우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유일한 대안인 창조론이 자기 입에 맞지 않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든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그 정교함과 광대함과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인간의 독특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구원의 필요성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펜, 모자, 마이크, 책 등을 보십시오 모두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들을 판단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즉 설계가 있고 이것에 따른 제품이 있으며 또 반드시 제품을 판단해서 폐기 처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산업자라면 누구나 이 일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창조와 심판을 가르치는 믿음 시스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물건에도 다 메이커가 있는데 물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아무 설계 없이 그냥 흙에서 생긴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을 믿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라고 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학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하나님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기지 어떻게 설계가 되었겠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은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기 전에 그는 자기 집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들을 쭉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그의 친구가 집에 와서 그것을 보고는 “자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나? 아주 훌륭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말했습니다. “아 그것들은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다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미쳤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 누가 만들었지.”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늘의 저 별들이 다

그냥 생겼다면서? 달이고 태양이고 다 그냥 생겼다면서. 이 땅에 있는 조그만 것들도 다 만들어야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길 수 있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즉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든 모든 것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판단하는 때에 불에다 놓고 소각을 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부실한 사람들을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만들어진 존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내가 만들어진 존재임이 확실하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이커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폐기 처분돼서 소각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돌덩어리에서 나왔는가? 원숭이에게서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깊이 뼈저리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 3. 구원의 방해물

그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구원에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물건을 만들 때에는 꼭 불량품이 생깁니다. 이런 불량품은 대개 사람의 실수로 생깁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물건은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메이커는 사람을 이와 같은 수동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불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겐 자유 의지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자유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간섭을 안 하십니다. 그냥 폐기 처분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방해물인 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과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과녁에서 벗어난 것이면 다 죄입니다.

우리는 다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칠 곱하기 칠은 사십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칠 곱하기 칠은 오십’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칠 곱하기 칠은 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둘 다 빵점을 주겠지요? ‘칠 곱하기 칠은 사십구’가 아니면 다 빵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오십이라고 했으니 일만 틀렸고 저 사람은 백이라고 했으니 오십일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십 점을 주고 저 사람은 빵점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선생님이 무어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칠 곱하기 칠은 반드시 사십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빵점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준 과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과녁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됩니다. 구구단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칠 곱하기 칠’의 경우 답은 단 한 가지, 즉 사십구밖에 없습니다. 49.1도 틀립니다. 49.000001도 틀립니다. 오직 유일한 답은 49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크게 벗어나든 작게 벗어나든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것은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죄인은 사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은 대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지은 것이 별로 없다. 남에게 해코지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과나무 이야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나무에 사과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죄를 지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 구원받고 목사가 됐어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므로 지옥에 간다면 저 역시 지옥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으므로 지옥에 갑니다. 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필연적으로 사과를 맺듯이 우리 역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죄들이라는 잔가지들 아무리 치워 봐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치워야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갈 때에도 죄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는 간음죄도 짓지 않았고 강도질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사람 아담의 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죄의 생명(혹은 죄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죄성을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성을 치우는 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위에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전통을 따라 각종 고행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며 선행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것처럼 열성을 내어 심신 수도에 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다 스승 사제에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의 유적들을 보고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았으며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행이나 선행 같은 것으로는 인간 내부의 죄를 없앨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가 사람의 구원 문제의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사59:2)

#### 4. 구원 계획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펜 공장에서 펜들이 생산되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펜이 다른 펜들을 쪽 살펴보고는 잘못된 펜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펜이 잘못된 펜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니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이 잘못되면 누가 고쳐 줄 수 있습니까? 펜을 설계한 사람만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설계한 분만이 사람에게 생긴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구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종류가 다른 ‘따로 구분된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자로서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 소크라테스, 부처, 법정 승려,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 등과 같이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다 죄 덩어리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황, 신부,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장관, 기업의 총수, 교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시뻘건 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는 사람을 구원할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짐승은 죄를 안 지으므로 일시적으로 짐승을 죽여 죄를 덮을 수는 있지만 짐승은 사람을 위한 '영구한 죄 가리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본성에 너무나 크게 위배가 되지만 사람이나 온 우주 공간의 창조물은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조자, 심판, 죄인 등의 정의에 대해 잘 생각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깊게 생각해야 성경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하나 들고 가서 5분 정도 설명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식으로는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초점은 사람이 죄와 죽음의 문제와 앞으로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과정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다가 갑자기 친구가 와서 사영리를 설명해 주고는 이래저래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제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심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운명에 대해,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5. 구원 초청

지진이나 홍수, 비행기 충돌 사고 등의 재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악한 도시들을 심판하신 것은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감추어진 가장 큰 비극은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은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그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습니다.

구약 시대 노아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12절을 읽어 보면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사십 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대홍수 속에서 얼마나 황급해 하며 허우적거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에서 “홍수가 시작되어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가장 큰 비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기간,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的时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또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이제 곧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고 있으며 아주 단순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로 인해 피를 흘리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아니오.” 혹은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확실히 당신에게 가장 큰 비극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나고요? 당신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큰 비극을 맞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로 나아오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있거나, 당신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면 이 책을 옆으로 밀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주님으로 인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 즉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몰랐다.”고 기록하며 롯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당신은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무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ה

**히브리어 구약 성경**

BIBΛO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Ἀ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윌리엄스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03230

ISBN 978-89-951587-8-4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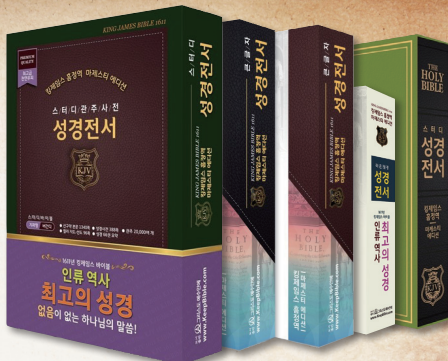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